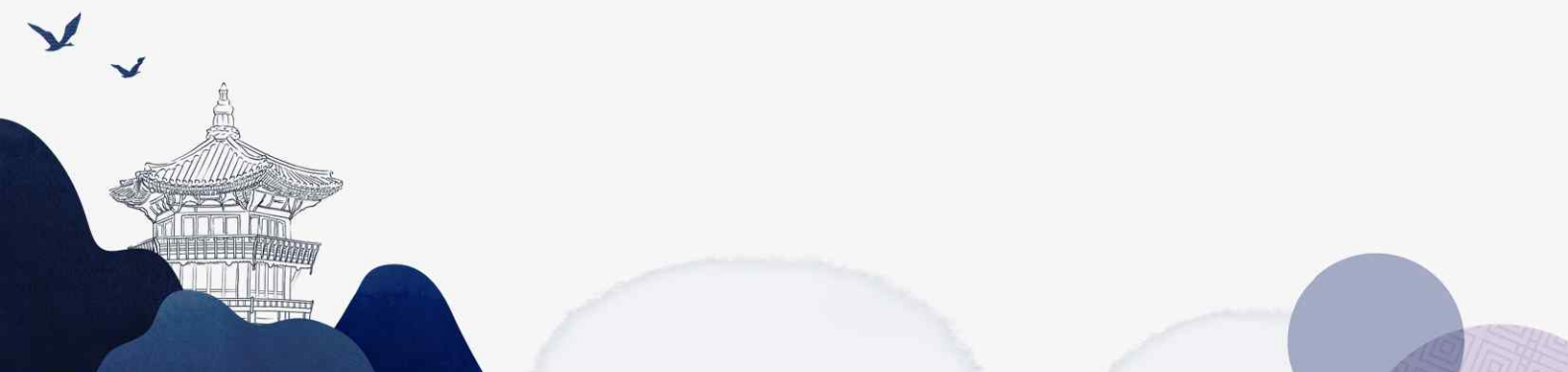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4
4	讲义	51
5	퀴즈	71
6	토론	76
7	자료	79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은 한국의 고전 가운데 6종의 문헌을 선정하여 저술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고급 교양 강좌이다. 6종의 고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헌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문헌을 깊이 연구하고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도록 기획하였다. 각각의 문헌마다 2주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각기 고전의 저자, 저술 배경, 의의 등을 소개하는 '이해'와 고전의 본문을 강독하면서 해설을 곁들이는 '읽기'로 구성된다. 6종의 문헌을 다룬 강의를 모두 학습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수강생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일부 문헌만 학습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2

학습목표

- (1) 한국 고전의 이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2) 한국 고전의 감상을 통해 고전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의 기록문화를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얻는다.
- (3) 한국의 고전을 매개로 삼아 한국 및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및 출판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03

기대효과

이 강좌는 한국의 고전을 직접 읽어가면서 내용과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6종의 고전 가운데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헌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별화된 고급 교양을 얻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문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가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강좌에서는 《양화소록》, 《경민편》, 《연병지남》, 《한경지략》, 《만국사물기원역사》, 《한국통사》의 6종의 고전을 각기 2주씩 강의한다. 이들 고전은 화훼 재배와 감상, 백성의 교화, 병법, 풍속과 문화, 백과사전적 지식,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이 그 저술 배경과 저자 등에 대한 지식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감상하게 되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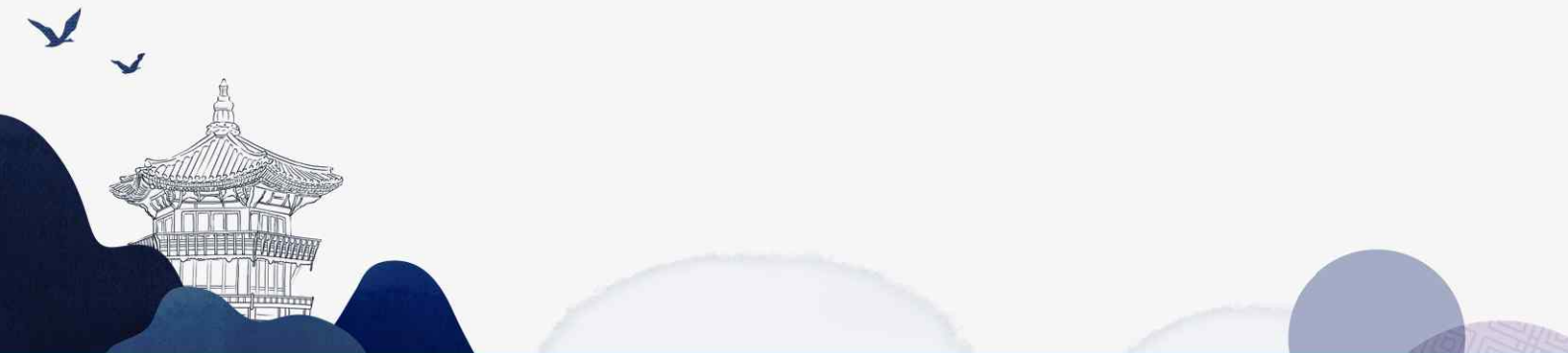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주차별 구성

1주차	《양화소록》의 이해
2주차	《양화소록》 읽기
3주차	《경민편》의 이해
4주차	《경민편》 읽기
5주차	《연병지남》의 이해
6주차	《연병지남》 읽기
7주차	《한경지략》의 이해
8주차	《한경지략》 읽기
9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이해
10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 읽기
11주차	《韓國痛史》의 이해
12주차	《韓國痛史》 읽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1

주차

《한국통사(韓國痛史)》의 이해

11-1

세간에 알려진 《한국통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에서 《한국통사》의 강의를 맡은 김태웅입니다. 이번 강의는 열한 번째 강의로 '한국통사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박은식의 대표 저서인 《한국통사》를 중심으로, 이 책의 저자인 박은식의 생애와 저술 활동, 《한국통사》저술 배경과 과정, 그리고 국내외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장지연의 《만국사물기원역사》를 살펴보면서 한국 백과사전편찬의 또다른 역사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내용을 엄두에 두면서, 정통 근대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박은식의 《한국통사》가 가지는 사학사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통사》는 박은식이 1915년 중국 상하이 대동편역국(大同編譯局)에서 출간한 역사책으로, 1863년 대원군 정권부터 1911년 105인 사건까지를 서술한 당대사입니다. 오늘날에는 한국 근대사에 해당하겠지만, 당시로 보아서는 현대사(contempora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동편역국은 무술변법운동으로 유명한 중국의 Kangyuei의 동생 Kangguoren(康廣仁)이 운영하는 출판사입니다. 여기서 각국사 시리즈를 출간하는 가운데 박은식의 《한국통사》가 출간되었습니다. Kangyuei는 이 책의 서문을 지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다른 책과 착각할 수 있을 듯하여, 이 책의 제목을 한자인 《韓國痛史》로 표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한국통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통사(通史)는 무슨 뜻일까요? 우선 사전에서 '통사(通史)'를 찾아보면 '역사 기술(記述, complete history)의 한 양식' 또는 그렇게 쓴 역사라고 하면서 어느 특정 시대에 한정하지 않고, 전 시대에 걸쳐 역사적 줄거리를 서술한 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한우근 교수가 《한국통사》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 밖에 변태섭 교수가 자신의 한국사개설서를 《한국사통론(韓國史通論)》이라고 명명하였고, 이헌창 교수는 자신이 지은 한국경제사를 《한국경제통사(韓國經濟通史)》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대 전체를 관통하여 저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강의에서 다룰 《韓國痛史》의 ‘통사(痛史)’는 아플 통(痛), 역사 사(史)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박은식은 자신의 저서를 아픈 역사라고 명명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서언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망국사가 세계 망국사에서도 가장 참혹하여 원통함을 그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 지배하면서 벌이는 각종 참담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은 한국을 대만처럼 지배하고,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은 한국인의 재산마저 빼앗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웨덴이 노르웨이를 합병하고,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합병했어도 차별 대우가 없으며, 영국 역시 캐나다를 지배하나 헌법을 보장하고 의회를 설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영국이 인도를, 프랑스가 베트남을,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할지언정 백성의 재산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대해 그렇지 않았다고 하여 한국의 아픈 역사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박은식은 자신의 책에서 나라의 멸망을 애통해하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아픈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픈 역사를 지나간 과거로 여기지 않고, 역사책으로 남김으로써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컨대 박은식은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 세계 여러 곳을 전전하였으나 유대인의 칭호를 잃지 않은 것은, 그들 조상의 가르침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도 역시 현재는 영국의 식민지이지만 인도 정신의 젖줄인 브라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부흥하리라 전망하였습니다. 반면에 멕시코 인디언은 스페인에 망한 뒤 전통과 문자가 모두 멸하여 인종은 존재하나, 정신은 이미 전멸했다고 보고 부활할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식에게 나라가 형체라고 한다면 역사는 정신이었습니다. 다시 정신은 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혼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혼은 사람의 정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soul, spirit, ghost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다면 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거느리고 목숨을 붙어 있게 하며, 죽어도 영원히 남아있다는 비물질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혼비백산(魂飛魄散)이라고 하거나 열이 빠졌다고 할 때 그 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체인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정신인 혼이 남아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이 때 이런 혼을 담은 것이 역사라고 보았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잊지 않는다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한국통사(韓國通史)》가 아플 통을 쓴 통사로 명명되었는지 알아보면서 일반 학자들의 개설서와 달리 아픈 역사를 담아야 하는 저자의 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을 저술한 박은식의 생애와 저술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1-2 박은식의 생애와 저술 활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통사(韓國通史)》가 아플 통을 쓴 통사로 명명되었는지 알아보면서 일반 학자들의 개설서와 달리 아픈 역사를 담아야 하는 저자의 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을 저술한 박은식의 생애와 저술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저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책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책을 집필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집필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와 책은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근대의 많은 인물들이 일제의 감시와 검열로 인해 자신의 기록을 남기지 못한 나머지 잘못된 정보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출생과 성장 과정에 관한 정보가 오늘날과 달리 남아 있지 않거나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박은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진 것으로 그의 본관이 밀양, 자는 성철, 호는 겸곡 또는 백암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그의 사진과 송상도의 《기려수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키에 광대뼈가 튀어나왔으며 늘 미소 짓는 얼굴에 넉넉하고 소탈한 성품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흉상은 2015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박은식 선생 손자분의 지원으로 만든 흉상입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황해도 해주라고도 하고 황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도 삼등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저 역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의 성장 과정에서의 교유관계라든가 출생지의 환경이 어떤 인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래 정설에 따르면 그는 황해도 황주 출신으로 일찍부터 황해도 일대에서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였습니다.

또 하나 인물의 삶을 추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출생 연도입니다. 그가 태어난 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태어난 해가 1859년 철종 10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대외적으로는 이양선으로 불렸던 서양의 많은 배들이 한반도 각 연안에 들어와 통상을 요구했던 서세동점의 시기입니다.



특히 황해도는 구미 열강들이 자리 잡고 있던 산둥반도와 가까워, 이들 이양선의 출몰이 잦았습니다. 박은식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일찍부터 서양 오랑캐들이 조선을 침범한다고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또 1866년에는 프랑스 군대가, 1871년에는 미국 군대가 강화도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강화도와 가까웠던 황주의 경우, 그 놀라움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1866년 황주와 가까운 대동강 어구에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들어옵니다.

훗날 그가 병인양요와 제너럴셔먼호 사건, 신미양요를 자세히 집필한 것도 자료를 많이 수집했기도 하였거니와 본인 스스로 이런 전투 소식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박은식에게 소박하나마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또한 그는 세도정권의 끝 무렵과 대원군 정권 초기 개혁을 귀로 들으면서 개혁의 필요성도 누구보다도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가 4살 때인 1862년 삼남지방에서 민란이 일어났으며, 곧이어 대원군 정권의 개혁 과정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17세에 건문을 넓히기 위해 고향을 떠나 학습의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밀양 박씨 후손으로 조부와 부친이 농업경영과 유교 교양을 통해 평판이 높았음을 보면, 그러한 학습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적 기반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즈음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과 만났습니다. 당시 이 일대에서는 안태훈과 함께 박은식을 '도내 양 신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의 재주를 칭송하였습니다. 그의 수학 활동은 그가 평안도 삼등으로 이사 가면서 또한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2세 때인 1880년, 경기도 광주 두릉에 가서 신기영과 정관섭을 만났고, 홍석주의 손자인 홍승운을 만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광주에 가서 정약용의 학문에 접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 역시 그런 속설을 따랐습니다마는, 최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노관범 교수가 그의 저서 《박은식평전》을 통해서, 경화사족 풍산홍씨 홍석주 계열의 문학을 연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박은식은 경화학계에서 저술되는 명나라 역사책의 기초인 대명의리론을 깊이 체득했으리라 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영향이 《한국통사》에 흐르는 근원적인 바탕이 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가 광주에서 홍승운에게서 문학만 배웠겠냐는 의문이 살짝 듭니다. 그 역시 홍석주와 가까웠던 정약용의 학문과도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훗날 그가 황성신문 논설을 통해 드러낸 유형원과 정약용에 대한 관심은 이때 맺은 인연과 관련되어 일어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모든 청년들의 꿈인 입신양명을 위해 1882년 24세에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그는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란을 목격합니다.

《한국통사》임오군란 내용이 여타 사건 서술보다 생생하고 직접 듣는 것 같은 느낌은, 박은식이 당시 민중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은 결과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유력 문중을 위해 난후의 대책을 지어 정부에 헌정하였습니다. 유력 문중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임오군란의 발발 배경을 통해 개혁안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민씨 척족세력의 전횡과 수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이어서 1884년 갑신정변 역시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훗날 친구의 구술을 통해 갑신정변을 생생하게 복원합니다. 이후 그는 입신출세를 포기했는지 낙향하여 평안도 대표적인 성리학자 박문일, 박문오 형제에 들어가 문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암울한 정국을 보면서, 과거를 보거나 유력 가문의 문객이 되어 관직에 나아가기보다는, 학문 연마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박문일 형제와 연결되는 남정철이 평안도 관찰사로 내려오면서 향시 합격의 명예를 얻습니다. 이후 민병석이 평안도 관찰사로 내려오자 기자 사당이라 할 송인전을 지키는 영이 되기도 합니다. 학문적인 명성에 따른 출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민병석은 평안도 문인들과 유학자를 우대하면서 왕실에 대한 평안도 지지기반을 확장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황해도와 평안도에 민란이 일어나는 광경을 보면서, 1880년대 민씨척족정권의 수탈과 민인들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란이 일어나자, 민병석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 올라가 민씨정권의 실세인 민영준을 만나 정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농민전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으로 인해 민병석이 밀려나면서 박은식은 다시 그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이 와중에 원주로 이사하면서 숨가쁜 정국의 동향을 원주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민병석이 1894년 12월 원주로 유배 가면서 박은식도 연고지도 없는 원주에 따라갔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을미의병의 거역과 인민의 참상을 목격하는 가운데, 기존 성리학을 반성하면서 인민의 고통을 자각하고 새로운 길, 즉 시세의 변동에 부응하여 개혁하고자 하는 시무개혁론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민병석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자, 그 역시 1898년 40세에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그는 서울에서 다양한 조류와 사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전부로 여겼던 성리학에서 벗어나 제자백가, 불교, 기독교, 과학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세의 변동 즉 천하대세와 시국 형편에 맞추어 세계관을 바꾸는 시무변통의 자세라고 하겠습니까.

이는 유학자라면 중시하는 주역과 중용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문수학했던 친구들에게 시무를 살피 신학문을 연구할 것을 권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 무술의견서를 제출하여 천거제 시행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인재 선발 규칙과 인재 선발 기준을 제안하면서 대신과 관찰사가 천거한 사람을 공식적으로 검증하여 관직을 주고 천거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곧이어 1900년 3월 31일 한성사범학교 교관에 임명되어 한문과 윤리 등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민병석의 추천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는 여기서 사범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특성과 사범학교에서 가르치는 분과(分科) 학문의 중요성을 체감하였습니다.

그는 교관으로서 교육개혁을 주장하였고, 이후 모친상으로 교관을 그만둔 뒤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901년 대기근을 맞이하여 제출한 <신축의견서>에서 진흥을 위해 외국산 곡식을 수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안남미를 수입하여 진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전과 달리 근대 무역을 이용하여 진흥을 실시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또 그의 저서 《학규신문》을 통해 유교로서 신정(新政)에 권위를 주되, 신학문을 적극 수용하여 자강자립의 기반을 만들 것을 역설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학규신문》으로 주목받았던 그는 언론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대한매일신보》주필로서 을사늑약에 항거하는 글을 쓰거나 사회 개혁을 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호외 기사를 내보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후일 《한국통사》에서 누구보다도 을사늑약의 이면을 서술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시기에 확보한 자료 덕분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교자강(信敎自強)>이라는 글에서 국가의 재력과 무력이 약해도 자국의 종교와 역사를 보전하면 독립정신이 전멸하지 않아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통사》에서 서론에서 강조했던 국혼론(國魂論)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또 대한제국의 위기 앞에서 교육 진흥을 내세우며 자강의식의 신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우학회 총회에서 사범야학교 교장으로 선출되어, 일본의 수중에 들어간 한성사범학교를 대신하여 민립사범학교 설립을 통해 자주적인 교사를 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자강회에 가입하여 그의 자강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실천하였습니다. 1908년 4월 황성신문사에 입사하여 논설위원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즈음 주자학자에서 양명학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는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로 주권 수호의 가망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일부 학회와 정치 세력이 민인을 괴롭히거나 친일화되는 현실을 보면서 본연의 양심(良心)을 확충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즉리(心卽理),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강조하는 양명학과 연결되어 양명학자로 옮겨갔습니다. 즉 자신의 양지(良志), 즉 착한 본성을 통해 세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고통받는 세인을 구원하라는 적극적인 구세의 정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신지식과 함께 신도덕을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1910년 8월, 국망을 전후하여 묵묵히 《고등한문독본》을 발간하고, 《왕양명실기》를 탈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여러 지역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상호 부조론에 이름으로써, 사회진화론에 경도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각 민족의 공존과 대동사회를 꿈꾸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박은식의 국내 활동은 1910년 국망을 맞아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11년 서간도 회인현에 망명하여 대중교가 운영하는 동창학교와 시교당에서 활동하였는데, 이때 교재용으로 《대동고대사론》과 《동명성왕실기》를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몽배금태조》등을 저술하였고, 이들 저서는 기존의 화이론적 역사관에 벗어나 여진족 여러 북방 민족을 모두 단군의 후예로 보고, 북방 민족의 역사를 한국 민족사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몽배금태조》는 박은식이 꿈속에서 금나라 태조를 만나고 그로부터 들은 민족운동 방략의 이야기로서, 이러한 저술들은 민족의식의 배양과 국권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이 책에서는 국제 질서와 사회 질서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국가와 국가의 평등, 인간과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새로운 문명의 수립이 대동민족의 청년에게 부여된 역사의 과업임을 역설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면서도 국가 간 호혜와 평등을 주장하는 국제주의를 겸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즈음 신규식과 함께 동제사를 설립하고 총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박달학원을 만들고 군사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항일운동을 위한 한중 지식인들의 연대 조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은식은 연해주로 가서 1917년 7월 조소앙이 기초한 <대동단결선언>에 참여하였고, 《한족공보》의 주필이 되었습니다.

3·1운동 이후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는 파리강화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국제연맹회의에 한민족의 독립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그해 7월 임시사료편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박은식은 한일관계사료 편찬에 종사하였고, 그해 9월『한일관계사료집』4책이 간행되었습니다.

박은식이 독립운동사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료집 편찬을 위해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료집 제2책에서 4책에 수록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1920년에 완성한 것입니다. 1920년에 출간된 그의 명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민족독립운동에 참가한 그의 체험과 견문이 녹아 들어갔습니다. 이 책은 전통적 역사서술방식인 편년체나 기전체에서 탈피하여, 근대 역사학의 서술방식인 주제별, 사건별, 사실별 체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책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편에서는 한민족의 역사와 한말의 역사적 사건, 일제의 침략 정책과 이에 대한 민족의 항거, 그리고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한 일제의 학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편에서는 한민족과 일본민족을 비교하여 양 민족은 결코 결합될 수 없는 얼음과 쏜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직전 국내외 한국인의 활동과 독립운동, 3·1운동의 발발과 진행 과정, 지방 및 해외에서의 3·1운동의 집회 횟수, 피검거 인원, 사망자 수, 부상자 수, 투옥자 수의 통계표 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만행 사례,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 상황, 즉 임시정부의 수립, 민족독립을 위한 각계의 대외 활동, 독립군의 투쟁과 청산리대첩, 청년과 부인들의 활동과 열사들의 투쟁, 서간도·북간도 지역에서의 일제의 만행과 그 참상 조사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록에서는 한국인의 독립운동에 대한 세계여론을 수록하였습니다. 미국인 헐버트(Hulbert, H.B.)가 쓴 일제의 한국침략과 이에 대한 한민족의 저항에 관한 글을 비롯하여, 중국·상해·영국 등 각국 신문에서 한민족 독립운동 상황을 소개한 글들을 뽑아 싣고 있습니다.

이후 박은식은 이승만이 국제연맹위임통치론으로 탄핵되자 제2대 대통령을 맡았고, 1925년 7월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헌법이 시작되자 임시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오후 7시 상해 공제의원에서 별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해 정안길로 공동묘지 600번지에 묻혔던 그의 유해는 1993년 8월 국립묘지로 이전되어 안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자 박은식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사상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그의 저술 활동도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통사》의 저술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1-3

《한국통사》저술 배경과 동기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자 박은식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사상, 그의 저술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통사》의 저술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식은 험난한 시절에 왜 이 책을 집필했을까요? 역사가는 이런 책을 학문 연구의 과정에서 쓸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저자가 살았던 시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이 한국사 관련 여러 저술들 가운데 차지하는 위치는 어떨까요?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책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중국 상해에 소재한 출판사 대동편역국의 요청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동편역국은 각국 근사집(近史集)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근사로는 영국사, 독일사, 프랑스사, 러시아사, 오스트리아사, 이탈리아사, 일본사가 기획되었고, 망국근사(亡國近史)로는 월남사, 고려사, 미얀마사, 인도사, 폴란드사, 이집트사, 유태사 등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책은 망국근사 계열의 하나로서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료들과 원고들을 최종 마무리하며 탈고한 결과로 보입니다.

우선 저술의 시대적 배경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출간한 연도가 1915년으로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한 지 5년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일제의 침략을 배경으로 집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목 《한국통사》의 내용 구성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일제 침략을 고발하고, 한국 근대사의 중요 사건을 다뤘다는 점에서 이 시대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저술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서는 우선 그가 Kang Yu-wei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입니다. Kang Yu-wei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淸) 말 변법자강운동을 벌였던 개혁운동가이자 대동사회를 꿈꾸었기 때문에 박은식과 공감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또 제가 오래 뜻을 품고도 아직 착수하지 못한 것이 국사입니다.
무릇 한 개인의 죽음에도 반드시 행장과 입전(立傳)이 있는데,
4천여 년 나라의 종사가 망했는데 통사(痛史) 하나 짓지 못한다면
어찌 인류가 존재하는 사회라 하겠으며,
어찌 기천년 문화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근 수십 년간 충신 의사의 순국이 우뚝하니 줄지어 일어났는데,
수습해서 표장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들의 죄가 아니면 누구의 죄입니까.
일절 내정과 외교의 득실이 모두 만세에 권계가 되는 데다, 하물며 중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우리들이 중국에 만에 하나라도 효험이 되는 일로 이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세계 각인에게 우리 한인의 비참한 사정을 알려려면 이는 더욱 잠시라도 늦출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유리전패 하느라 여기에 미칠 힘이 없고,
또 동지의 도움이 없어서 그저 속병이나 앓을 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여 선생이 주선하시지 않겠습니까.

박은식은 여기서 한국통사의 서술 배경과 동기를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첫째, 동아시아 역사 전통을 들어 왕조가 바뀌었을 때 반드시 이전 왕조, 국가의 역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
- 둘째, 한국 근대사에서 많은 충신·의사의 순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것.
- 셋째, 한말 계몽운동과정에서 다양한 역사서 출간된 것. 예컨대 《을지문덕전》, 《강감찬전》, 《이순신전》, 《미국독립사》, 《월남망국사》, 《독사신론》 등은 훗날 박은식이 《한국통사》를 집필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을 것.
- 넷째, 중국은 한국과 밀접하니 한국 근대사는 중국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 다섯째, 이러한 역사서술이 한국이 국제사회에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직접적으로는 일제 침략의 본질을 폭로하고, 한국인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문명국가, 문명 세계의 일원으로서 역사 편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통사의 서술 동기 중 첫 번째가 가장 커다란 요인입니다. 그는 결론에서 국교, 국학, 국문, 국사로 대변되는 국혼을 잃지 않는다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설령 나라를 잃을지라도 언젠가 국혼에 기대어 나라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망한 나라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서술해서 보존해야만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민족의 보존이 필요한데, 역사만큼 민족의 집단기억을 보존하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책을 집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사학사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단지 망한 나라의 아픈 역사를 기술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일까요? 그는 그것을 무엇보다 왕과 신하 위주로 서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 근대사를 민인(民人) 대중에 중심을 두고 사건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저자 자신도 근세신사를 본떠서 사건을 차례대로 장(章)을 구성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안중근의 서술 방식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열전 방식의 서술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술 방식은 예외적입니다. 오히려 사건사, 주제사 중심의 서술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뿐더러 계몽적인 성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화이론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주권국가적 역사관에서 기술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중국사가 우선 서술되고 이어서 조선사가 서술되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큰 나라가 먼저 서술되었습니다. 어린이 역사책이라 할 박세무와 민제인의 《동몽선습》이 그러합니다. 또한 조선을 제후의 나라로 자리 잡고, 조공사대의 관계에서 기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국과 대등한 처지에서 주권국가 중심의 역사서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 사건과 사실들을 인과관계에 입각한 근대적 역사서술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과 사건에 대한 논평을 해당 장의 끝부분에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평이 미진할 때면 안(按)설(說)을 붙여 박은식 자신의 논평을 부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 시기의 역사서술 체제도 일부 수용함으로써 저자의 역사적 관점과 평가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즉 그의 이러한 독특한 역사서술체제는 근대적 역사서술 방식에 입각한 가운데 전통적 사관(史官)의 포폄 방식을 준용함으로써, 망국에 대한 준엄한 반성을 촉구하여 광복의 길을 열어 가려는 저자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가 이 책에서 일제의 침략과 한국인의 주권국가 건설 운동을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정면으로 서술했다는 점은, 이후 한국인들이 일제의 폭압과 교묘한 동화정책에 굴하지 않고 항일민족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는 수시로 자강과 자립을 강조하면서 주권국가의 실패 원인은 자강과 자강의 좌절에서 찾았고, 이후 국권 회복도 자강과 자립에서 찾았습니다. 예컨대 조선 정부가 구미와의 수호 통상조약만 믿다가 국망을 면치 못한 것은, 자강 자립의 실력이 없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소위 조약문이라는 것은 모두 종이 위에 글자를 다듬어 놓은 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천적 역사 인식과 근대적 역사서술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주체의 형성과 발전은 자기 문화의 자주적 건설 경험은 물론, 외부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책은 오늘날 한국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에 곱씹어 읽어야 할 고전인 셈입니다.

《한국통사》의 자매편이라고 할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통해 3·1운동을 비롯한 한국인들의 항일민족운동을 일독한다면 한국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통사》가 세상에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과 사학사적 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통사》의 저술 과정과 구성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 한국통사의 저술 과정과 구성 방식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통사》가 세상에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과 사학사적 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통사》의 저술 과정과 구성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반 논문도 아니고 학술연구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집필했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는지 근거로 삼은 사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통사는 일반 통사나 시대사와 마찬가지로 연구 논문이 아니라 각주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저술하는 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불명확합니다.

일단 박은식이 Kangyuei에게 보낸 편지에서 통사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집필 작업에 아직 착수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밝힌 바와 같이 통사 작업의 필요성과 책무 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터라 집필 준비를 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중국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명성왕후 시해 사건을 조사한 그레이트하우스 보고서는 사전에 입수하지 않았나 합니다.

특히 갑신정변에 관한 서술에서는 여기에 관련한 친구로부터 직접 들은 자세한 전말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소에 일기 형식이든 사초 형태이든 여타 식자층과 마찬가지로 메모해 두었음을 역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기의 방식으로 사초 형태든 그는 여타 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천야록》과 《대한계년사》를 쓴 황현과 정교의 자세에서도 두드러집니다.

박은식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아 집필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본인이 범례에서 밝힌 대로 10여 종류를 참고했다고 한 것을 보면, 10여 개 이상의 자료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신문자료, 법령집, 조약문 등이 포함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관련 법령과 조약문이 한국통사 곳곳에 전사되어 있음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중에는 그레이트하우스의 명성왕후 시해 조사 보고서도 포함됩니다. 다만 1904년 이후는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저자 자신도 매우 바빠 자료 채집에 누락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시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신정변의 경우, 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후 일본 정치가들의 평가를 모았을뿐더러, 김옥균 암살 후 사건에 대한 일본 정계의 반응도 소개했습니다. 또한 '동학지란'을 서술한 부분에서 '금상(今上)30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고종의 강제 퇴위 이전에 초고가 집필되고 있었음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해 온 결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청국에서 발행되는 《만국공보》등을 보고 해외 사건과 동향도 반영하였습니다. 1894년 3월 김옥균 피살 이후 일본인들의 동향을 적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서 논설 주간으로 활동하면서 중요 자료를 그때그때 채록하였다가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 경기도 양근에 거주했던 지규식이 신문을 남겨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1911년 이후 박은식이 《동명왕실기》, 《몽배금태조》, 《천개소문전》등 수많은 교재와 저서를 집필하느라 분주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통사》는 평소에 작업해 놓은 자료 정리에 뒷받침되어 완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밖에 근래에 발견된 광개토대왕비를 언급할 정도로 최근에 발견되거나 발굴된 금석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책 별면에는 광개토대왕의 서체를 집자하여 제목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한국통사》의 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의 서두에 범례, 목차, Kangyuei의 서문과 박은식의 서언, 사진 목록, 광개토대왕비에서 집자한 오조, 은택, 훈척, 성심, 추모 그리고 다양한 사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책의 결미에는 박은식의 결론, 신규식의 후서, 한진(韓震)의 발문, 정오표가 있습니다. 본문은 총 3편으로 나뉘고 총 114장의 본편입니다.

제1편은 우리나라 지리와 역사의 대강을 2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제2편은 총 51장으로 대원군의 섭정에 서부터 러·일 전쟁과 열강의 이권 쟁탈까지의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제3편은 총 61장으로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에서부터 1911년 105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한반도 강점 과정이 상세하게 서술되었습니다.

끝으로 『한국통사』와 유사한 이본(異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잘못 알려져 있거나 좀 더 활용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있는 『약기편람(略記便覽)』의 경우, 현재 작가 미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록 내용의 대부분이 『한국통사』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박은식의 《한국통사》를 저본으로 필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본문 말고는 모든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데다 본문마저 ‘임오군란지란(壬午軍變之亂)’, ‘갑신혁명당지란(甲申革黨之亂)’, ‘동학지란(東學之亂)’, ‘을미팔월폐후급복위(乙未八月廢后及復位)’, ‘지방지의병(地方之義兵)’, ‘이필아관살대신김홍집(移蹕俄館殺大臣金弘集)’ 등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내용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민영환등 순국(閔泳煥等殉國)’과 ‘중국지사반종례도해이사(中國志士潘宗禮蹈海而死)’가 끝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임오군변지란’의 경우, 같은 일자의 기사가 끝부분에 붙어 있거나, 갑신정변의 경우처럼 저자의 견해를 밝히는 안설(按說)에서는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예 누락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통사』의 초고라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통사』 초고의 일부 내용을 필사한 책으로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행 정보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가 규장각으로 이관된 《한말비록(韓末秘錄)》은 이와는 상반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상해본(上海本)과 달리 문집 형태로 되어 있으며, 본문 앞의 범례·목록·서·서언·삽화 및 본문 뒤의 후서·발 등이 없는 채 본문과 결론만 있습니다.

그 밖에 누락된 구절을 지면 상단 여백에 첨가하여 기입하고, 본문에는 누락 표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연구자들의 추정과 달리 이 책은 『한국통사』의 초고가 아니라 1915년 이후 『한국통사』를 필사한 책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광복 후 친일파 어떤 이가 편자가 되어 《한국통사》를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대구에서 어떤 사람의 번역본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역시 친일파가 자기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출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통사》가 국내외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 한국통사가 국내외에 미친 영향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통사》의 저술 과정과 구성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통사》가 국내외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통사》가 식민지 조선에 들어오면서 미친 파장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제가 엄금하는 금서여서 국내에 몰래 들어옵니다. 따라서 조선의 식자층은 물론 조선총독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통사》는 발간되자마자 국내에 유입되어 읽히거나 필사되어 유통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책은 일제의 감시와 검열이 심했기 때문에 통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인은 이 책의 국내 유입을 막느라고 혈안이 되었고,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한국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한답시고 이른바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 편찬에 착수하였습니다.

즉 일제의 입맛에 맞도록 철저하게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가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선반도사 편찬의 취지를 《한국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한국통사(韓國痛史)라고 일컫는, 한 재외 조선인의 저서 같은 것이
진상을 규명하지는 않고 함부로 망설(妄說)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적(史籍)들이 인심을 현혹시키는 해독 또한 참으로 큰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당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한국통사》에 영향을 받아 항일투쟁에 참여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으니, 중국·노령·미주 등지에서는 한국인들이 이 책을 탐독하거나 전해 들음으로써 일제 침략의 진실과 선조들이 벌인 정열적인 민족운동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1917년 하와이에서는 이 책을 한글로 번역 간행하여 재미 한인 학생들의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와이 한인교포들이 경영하는 국민신보에서 1917년 6월 김병식이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또 1917년 9월에는 러시아 치타에 거주하는 미상의 김 신부가 이 책을 러시아로 번역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의 한국인들도 일제의 매서운 눈길을 피해 몰래 탐독하거나 일제가 참고용으로 일부를 발췌하여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컨대 도쿄 유학생이었던 장덕수 등은 상해에서 《한국통사》200부를 주문하여 일본을 통해 조선 국내로 반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영남의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하경진은 1930년에 <한국통사>의 결론 일부를 인용하는 가운데, 일제가 《한국통사》를 없애려는 책동을 비판하면서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박은식의 사론에 적극 공감 하였습니다.

또 한말 대표적인 유학자 전우는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도에서 《한국통사》 3편 133쪽을 읽고,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가 원래 태자에게 대리를 시키려고 했건만 협박을 받아 선위 의식을 면치 못했음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전우 역시 《한국통사》원본을 직접 읽었을 정도로 이 책이 유통되었던 것입니다.

정인보는 1925년 박은식을 회고하면서, 박은식이 상하이 체류시 《안중근전》과 함께 《한국통사》를 저술하였음을 밝힐 정도였습니다. 이후 전시체제 하에서도 《한국통사》는 일부 식자층에게 몰래 유포되어 탐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후일 국문학자로 대성했던 1922년생 김동욱은 주오대학 전문부 법과에 재학 중이던 1940년대 전반 《한국통사》를 읽지 않았다면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을 것이라 회고할 정도였습니다. 《한국통사》는 일부 한국인 식자층에게는 일종의 필독서였던 셈입니다.

그리하여 일제는 책을 왜곡시키는 공작에 들어갑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각국근사》입니다. 이 책은 《한국통사》의 내용을 초락하되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시켰습니다. 예컨대 명성왕 후 시해사건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옹기지 않았으며, 독립협회 운동을 배후에서 방해한 사실을 누락시켰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침략을 대거 생략하거나, 일본인들이 저술한 역사책을 참조하도록 요구하여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컨대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한국인들의 상소운동을 일본인의 저서를 인용하여 ‘망동(妄動)’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한제국 군인들의 투쟁을 ‘소란’으로 몰아갔습니다.



사진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직원으로서 역사 왜곡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반면 중국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민족 이익에 입각하여 박은식의 《한국통사(韓國痛史)》를 참고해서 《고려민비(高麗閔妃)》, 《회도조선망국연의(繪圖朝鮮亡國演義)》, 《해아부복기(海牙剖腹記)》등 조선왕국을 제재로 삼은 문학 작품들을 창작하고 중국 민중들의 위기감을 자극하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들 역시 한국 근대사를 자신들의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우리의 역사를 열등한 역사로 왜곡하였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단지 일본인과 중국인만 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한국인 내부에서 《한국통사(韓國痛史)》를 자기 저작물로 둔갑시켰는지, 혹은 번역을 잘못했는지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유수의 대학 도서관에서 들어가서 《한국통사(韓國痛史)》서지 사항을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 곳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까이에서도 성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사》저술이 국내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한 《한국통사》역주본의 표지입니다. 1907년 군대해산 이후 영국인 종군기자 프레드릭 맥켄지가 대한제국 군인을 찍은 사진을 넣어 보았습니다. 어떨까요?

이상으로 《한국통사》의 저자 박은식의 생애와 저술 활동, 《한국통사》저술 배경과 과정, 그리고 국내외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통사》의 주요 내용을 통해 본격적인 시간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11

Understanding Han'guk Tongsa

11-1

Publicly Known Facts about Han'guk Tongsa

Hello, students. I'm Kim Tae Woong, one of the lecturers in this course, <Revisiting Korean Classics>, and I'm going to give you a lecture on Han'guk Tongsa. This is the eleventh lecture, and the theme of today's lecture is 'Understanding Han'guk Tongsa.'

Han'guk Tongsa (Painful History of Korea) is a major work of Bak Eun-sik, and we will think about the life and writing career of the author,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writing the book, and its impact on Korea and abroad.

In the last lecture, you learned about Jang Jiyeon's Man'guk Samul Giwon Yeoksa and explored another history of the Korean encyclopedia compilation. While keeping in mind what we saw in the last lecture, in this lecture, we will examine the historical value and the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historiography of Bak Eun-sik's Han'guk Tongsa, which is an orthodox modern history book. Han'guk Tongsa is a history book written by Bak Eun-sik and published by the Datong Translation House in Shanghai, China, which described the contemporary history from the regime of Heungseon Daewongun in 1863 to the 105-Man Incident in 1911. Today, it is a modern history of Korea, but at that time, it was a contemporary history.

Datong Translation House is a publishing company run by Kang Guangren, the younger brother of Kang Youwei of China, who is famous for Wuxu Reform. Bak Eun-sik's Han'guk Tongsa was published here as one of the series of the history of each nation. Kang Youwei prefaced this book.

First of all, I wrote the title of this book in Chinese characters, 《韓國痛史》, because you might mistake it for another book. How is it different from Han'guk Tongsa that you know well?



What does the word Tongsa (通史), which we commonly use, mean? If you look up 'Tongsa (通史)' in the dictionary, it is defined as 'a style of complete history' or history written in this way, and it is not limited to any specific era, but a book that describes historical process in all eras.

In fact, in Korea, Professor Han Woo-geun wrote a book called Han'guk Tongsa (Complete History of Korea). In addition, Professor Byeon Taeseop named his Korean history book Han'guksa Tongron, and Professor Yi Heonchang named his Korean economic history book Hanguk Gyeongje Tongsa. Because they describe history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But the 'Tongsa (痛史)' of 《韓國痛史》 that I'm going to talk about in my lecture today is made up of 'tong (痛),' meaning pain and 'sa (史),' meaning history. Why did Bak Eun-sik call his book Painful History? Directly, as he states in the introduction, it means that Korea's history of ruin is the most miserable in the history of all other ruins of the world, and he could not stop being resentful.

He mentions the various horrors of the great powers occupying and dominating weak countries, emphasizing Japan controlling Korea like Taiwan, and the Japanese who entered Korea even taking away Korean people's property.

First, although Sweden annexed Norway and Austria annexed Hungary, there was no discrimination, and Britain also ruled Canada but guaranteed the Constitution and let them establish parliament. And though the British ruled India, France ruled Vietnam, and the U.S. ruled the Philippines, they preserved the people's wealth. But Japan did not do that in Korea, which is why he calls it Korea's painful history.



Also, Bak Eun-sik says in his book that it is a painful history because he wrote this book in pain, lamenting the destruction of the country. However, he believes that the country could be taken back if he would not consider this painful history as a past and leave it as a history book. Bak Eun-sik, for example, thinks it was possible for Jews not to lose their identity as Jews while wandering around the world after the country collapsed because they could preserve the teachings of their ancestors.

He predicts that India would revive someday although it was now a British colony, because Brahman, the lifeline of the Indian spirit, was alive. On the other hand, he doesn't expect the Mexican Natives had the possibility of resurrection, because both their tradition and letters were destroyed after Spain defeated them, and although race existed, their spirit had already been wiped out.

To Bak Eun-sik, history was the mind while the state was the form. Again, the mind is the hon. It might be hard for you to understand hon here. Hon refers to the human spirit, and if translated into English, it will be soul, spirit, or ghost.

To be more specific, hon is a non-material and supernatural being that is in a person's body, keeps them alive, and remains forever even if they die. It's what is in the phrase we often use, honbibaeksan, frightened or stupefied out of senses.

Therefore, he thinks that even if the country as a shape is destroyed, it could be revived if the spirit, hon, remained. And history contains this spirit, so if you record the history of the past and don't forget it, you can regain the country again.

So far, we have briefly reviewed the author's feelings of having to write painful history, naming his book Han'guk Tongsa with tong as pain, unlike other ordinary scholars' introductory books.

Next time, we will look at the life and writing career of Bak Eun-sik, the author of this book.



11-2 Life and Writing Career of Bak Eun-sik

Hello, students. In the last session, we reviewed the author's feelings of having to write painful history, naming his book *Han'guk Tongsa* with *tong* as pain, unlike other ordinary scholars' introductory books. This time, we will look at the life and writing career of Bak Eun-sik, the author of this book.

In order to understand the value and meaning of a book, of any book, first of all, we need to find out who wrote it, how they lived and what they thought when they wrote. The author and the book are inseparable.

However, many modern figures were unable to keep their records due to Japanese surveillance and censorship, so there is a lot of misinformation about them. In particular, information on their birth and growth in those days is often not left or inaccurate, unlike that of today.

The same goes for Bak Eun-sik. It is known that his clan is from Miryang, his courtesy name is Seongchil, and his pen name is Gyeongmok or Baegam. In addition, as you can see from his photographs and Song Sangdo's *Giryeo Supil* (Biographical Essays), he is known to have had a medium-height, protruded cheekbones and a generous and easygoing personality with a smile always on his face. The bust you see was made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in 2015, with the support of Bak Eun-sik's grandson.

However, there is a controversy over his birthplace. Some say it is Haeju, Hwanghae-do, and others say Hwangju. Still others say it is Samdeung, Pyeongan-do. I am often confused, too. The reason why birthplace is important is that the social relationship in the process of growth or the environment of the birthplace often affects a person's development. According to a recent widely accepted opinion, he was from Hwangju, Hwanghae-do, and was so famous that he was called genius in the whole province from an early age.





Another important thing in tracking a person's life is the year of his birth. The birth year has a huge impact on one's life,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His birth year was 1859, the 10th year of King Cheoljong's reign. This is the period of surging Western powers, when many Western ships, which were externally called yiyangseon (strange foreign vessels), came to each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emanded trade.

In particular, Hwanghae-do was close to the Shandong Peninsula, where the Western powers were located, so these ships frequently appeared. Bak Eun-sik must have heard adults talking about them and been worried early on about Western barbarians invading Joseon. And as the French army invaded Ganghwado in 1866 and the American army in 1871, he must have been appalled in Hwangju, which was close to Ganghwado Island. Furthermore, the U.S. merchant ship General Sherman entered the fishing area of the Daedong River near Hwangju in 1866.

Later, perhaps, he could write about the French Disturbance, the General Sherman Incident, and the US Disturbance in detail not only because he collected a lot of data but also because he had been hearing the news about these battles and concerned about them since he was young. These events must have served as an opportunity to instill national consciousness in his mind, however little it might be.

In addition, he must have sympathized with the need for reform more than anyone else, listening to the stories of the end of the Sedo regime (in-law oligarchy) and the early reforms of the Daewongun regime. In 1862, when he was four years old, a peasant rebellion broke out in three southern provinces, and soon afterwards, Daewongun's reform would unfold before his eyes.

Then, at the age of 17, he left his hometown to broaden his horizons and began to expand his learning. Considering that his grandfather and father, descendants of Miryang Bak clan, had reputation for their agricultural management skill and Confucian refinement, it is presumed that they had an economic foundation to support such learning.





Around this time, he met Ahn Taehun, Ahn Jung-geun's father. At that time, both Ahn Taehun and Bak Eun-sik were praised for their talents by people in the region and they were called 'two prodigies in the province.' His learning met a new turning point once again when he moved to Samdeung, Pyeongan-do. In 1880, when he was 22 years old, he went to Dureung, Gwangju, Gyeonggi-do to meet Shin Giyeong and Jeong Gwanseop, met Hong Seungun, Hong Seokju's grandson, and became his pupil.

Some have claimed that he would have visited Gwangju and encountered Jeong Yak-yong's scholarship. I accepted that idea, too, but recently, Professor Noh Gwanbeom of the Kyujanggak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rgues in his book a Critical Biography of Bak Eun-sik that he studied the literary trend of Hong Seokju from Pungsan Hong clan, who was one of the Gyeonghwasajok, the literati of the capital. At this time, Bak Eun-sik must have learned deeply about Daemyung-Uiriron (Loyalty to the Great Ming), the keynote of history books of the Ming Dynasty written by those from Gyeonghwa school, the capital based intellectuals.

Thus, it is argued that this influence became the fundamental basis for Han'guk Tongsa. I also believe that this argument is valid. However, I slightly doubt that he only learned literature from Hong Seungun in Gwangju. I think he also had contact with the scholarship of Jeong Yak-yong, who had been close to Hong Seokju. His interest in Yu Hyeongwon and Jeong Yak-yong, which he later revealed through an editorial in the Hwangseong Sinmun, must have been linked to the relationship he made at this time.

He came to Seoul at the age of 24, in 1882, to achieve fame and prestige, a dream of all young people at the time. Then, he witnesses the Imo Soldiers' Rebellion, the Gapsin Coup, and the Donghak Revolution. The content of the Imo Rebellion in Han'guk Tongsa feels more vivid and direct than descriptions of other events, which is presumed to be the result of his first-hand hearing from the people at the time.



And based on this experience, he drew up post-rebellion plan for an influential clan at the time and dedicated it to the government. Although we don't know exactly who this influential clan was, but the reform plan can be guessed from the causes of the Imo Rebellion. It must have been to remove the tyranny and exploitation of the Min clan, the King's in-laws at that time.

Before long, in 1884, he saw the Gapsin Coup with his own eyes. Later, he restored the Gapsin Coup vividly through his friend's oral testimony. Then, he returned to his hometown as if he had given up his career and became a literary figure by joining the leading Neo-Confucian scholars of Pyeongan-do, Bak Munil and Bak Munso brothers. It seems that while witnessing the gloomy political situation, he decided to search for a new direction through academic discipline rather than take civil service examination or become a guest receiving patronage from an influential family to get a government post.

And soon after, Nam Jeong-cheol, who was connected to Bak Munil brothers, came to Pyeongan-do as the Governor, and he earned the honor of passing provincial examination. Later, when Min Byeongseok came to Pyeongan-do as the Governor, he became a yeong (prefect) of Sunginjeon Hall, Gija's shrine. This beginning of his official career is thought to have been based on his academic reputation. At that time, Min Byeongseok seems to have treated literati and Confucian scholars in Pyeongan-do favorably to expand the support base for the royal family.

Also, watching the civil unrest in Hwanghae-do and Pyeongan-do during this period, he must have felt the exploitation of the Min clan's regime in the 1880s and the suffering of the people.

And when the Donghak Revolution broke out in 1894, he went to Seoul under the direction of Min Byeongseok and met Min Yeongjun, the actual leader of the Min's regime, to look at the political situation and listen to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easant rebellion.



However, as Min Byeongseok was ousted due to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Gabo Reform, Bak Eun-sik had to give up his dream again. Even worse, he moved to Wonju in the midst of this, he had to listen to the trend of the messy political situation in Wonju. He must have followed Min Byeongseok to Wonju, where he had no connection, as he was exiled to Wonju in December 1894.

And while witnessing the rise of the righteous army in 1895 and the misery of the people there, he became aware of people's pain, reflected on the existing Neo-Confucianism, and sought a new way in simugaehyeokron (contemporary affair reform), which supported reform accommodating the changing contemporary situations.

However, soon after the Korean Empire was established and Min Byeongseok was restored, he also came back to Seoul at the age of 40, in 1898. At this time, he encountered various trends and thoughts in Seoul. Breaking away from Neo-Confucianism, which he had thought was all about the world, he became interested in the Hundred Schools of Thoughts, Buddhism, Christianity, and even science. It was the attitude of simubyeontong, adopting different world views according to the fluctuation of the general world situations and the state of affairs.

This was the teaching of Zhou Yi and Zhongyong that Confucian scholars have valued. Therefore, he even urges his friends whom he studied together with to look at the contemporary affairs and study the modern sciences. And in 1898, he submitted a 'Statement of Opinions in the Year of Musul (the 35th year of the sexagenary cycle)' to discuss the implementation of a recommendation system. Here, he presented rules and criteria for selecting talented people, insisting that the ministers and governors officially verify those who they recommended, give them government post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m. And before long, on March 31, 1900, he was appointed as an instructor at Hanseong Normal School and taught literary Chinese and ethics. I think Min Byeongseok recommended him in the process. Here, he experienc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mal School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he importance of academic disciplines taught in the Normal School.



He advocated educational reform as an instructor, and after he quit teaching due to his mother's death, he began to work in various fields. In his 'Statement of Opinions in the Year of Sinchuk (the 38th year of the sexagenary cycle)' submitted in the wake of the great famine in 1901, he insisted on importing foreign grains for relief. And the government actually imported Indica rice for relief. This argument presented a new way of implementing the relief measures using modern trade.

He also wrote Hakgyusinron (New Discourse on Education), where he emphasizes that a new politics should acquire authority through Confucianism, but actively accept the modern sciences to build a foundation for self-reliance.

After the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of 1905, he drew attention as a journalist and began to write articles protesting against the unwilling Treaty or discuss social reform as the editor in chief of Daehan Maeil Sinbo (the Korea Daily News). In particular, he tried to publicize the injustice of the Japan-Korea Treaty by publishing extras. It is believed that the data obtained during this period enabled him to describe the hidden side of the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better than anyone else in Han'guk Tongsa later.

In addition, in the article 'Singyojagang (Believing in Religion and Self-Strengthening),' he argues that even if the nation's wealth and force are weak, the spirit of independence will not be annihilated and national sovereignty can be restored if it preserves its religion and history. This was the beginning of his 'Gukhonron (theory of the National Soul),' which was emphasized in the introduction of Han'guk Tongsa.

He also emphasized the promotion of education to foster the self-strengthening awareness to cope with the crisis of the Korean Empire. He was subsequently elected as the principal of the Normal Night School at the general meeting of the Seowoo (Friends of the West) Academic Society and tried to cultivate teachers independently by establishing a private normal school instead of Hanseong Normal School, which had been fallen into Japanese hands. And he joined Daehan Jaganghoe (Korean Self-Empowerment Association) to spread his self-strengthening ideas. He joined the Hwangseong Sinmun Company in April 1908 and worked as an editorial writer.



And by this time, he had changed from a Neo-Confucianist to a Yangmingist. He thought of expanding his conscience as he saw some academic societies and political forces harass people or become pro-Japanese while the prospect of protecting sovereignty weakened due to King Gojong's forced abdication in 1907.

And that's what led him to the Yangmingism,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mind as the supreme principle, and the unity of knowledge and action. In other words, he sought a spirit of active salvation to know the pain of the public as his own through his own yangji (original nature of mind), that is, good will, and to save the suffering public.

Now, he came to emphasize the new ethics with the new knowledge. And later, in August 1910, when the national sovereignty was lost, he calmly published Godeung Hanmun Dokbon (Textbook for Advanced Literary Chinese) and finished writing Wangyangmyeong Silgi (Life and Thoughts of Wang Yangming). Furthermore, he accepted mutual aid theory, which urges to respect and protect various lives of people of various regions, and dreamed of the coexistence of every race and ethnic group in a universal society, away from nationalism that was overly focused on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However, Bak Eun-sik's domestic career ended in 1910 with the country collapsed. In 1911, he defected to Huairan County of West Jiandao, and worked at Dongchang School and Sigyodang run by Daejongism, and here he wrote Daedonggodaesaron (Ancient History of Korea) and Dongmyeongseongwang Silgi (Life of Dongmyeongseongwang) as textbooks. He also wrote Mongbaegeumtaejo (Having an Audience with Emperor Taizu of Jin in a Dream), in which he deviated from the traditional Sino-Barbarian dichotomy and regarded all the northern peoples of the Jurchen as descendants of Dan'gun, and included their history in the category of Korean national history.



In particular, Mongbaegeomtaejo is a story of the national movement strategies that Bak Eun-sik heard from Emperor Taizu of Jin in his dream, and these writings focus on cultivating national consciousness and restoring national sovereignty. Furthermore, the book emphasiz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ivilization that breaks down inequality in the international and social order and realizes equality among nations and people, as a historical task assigned to young people of the Great East.

Here you can see that he is based not only on nationalism, but also on internationalism that advocates reciprocity and equality between countries. Around this time, he established Dongjesa (Mutual Assistance Society) with Shin Gysik and became the president. Here, they created Bakdal School and offered military education. It further became the foundation for solidarity between Korean and Chinese intellectuals for anti-Japanese campaign.

And Bak Eun-sik went to Primorsky Krai and participated in the 'Great East Declaration of Solidarity' drawn up by Jo So-ang in July 1917, and became the editor in chief of the Hanjok Gongbo (Korean Gazette).

Wh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Shanghai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it decided to ask for the support for Korean people's independence at the meeting of the League of Nations following the Paris Peace Conference. In order to provide the necessary data, the Provisional Committee for Historical Material Compilation was organized in July of that year. Bak Eun-sik was engaged in compiling historical record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in September that year, the fourth book of Historical Records of Korea-Japan Relations was published.

This was when Bak Eun-sik began to write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refore, he was able to utilize the vast amount of data collected for the compilation of historical records. In particular, it was completed in 1920 based on the data contained in the second and fourth books of Historical Records. His famous book, the Bloody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published in 1920, was the result of such efforts.





His experiences and knowledge of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were absorbed in this. This book deviates from the traditional historical narrative of chronology or series of biographies, and adopts the narrative style of modern historiography, presenting history for each subject, event, and fact. As for the major contents of the book, the first volume covers a brief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the historical events in the last moments of the Korean Empire, invasion policy of Japan, the people's resistance to it, and the tyrann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The second volume compares the Korean and the Japanese, concluding that the two peoples can never be combined just like ice and charcoal can't. It also describes the activities of Koreans at home and abroad and their independence campaign just before the March 1st Movement, the outbreak and progress of the Movement, and the statistics showing the number of rallies in local and overseas areas, and the number of people arrested, killed, injured, and impriso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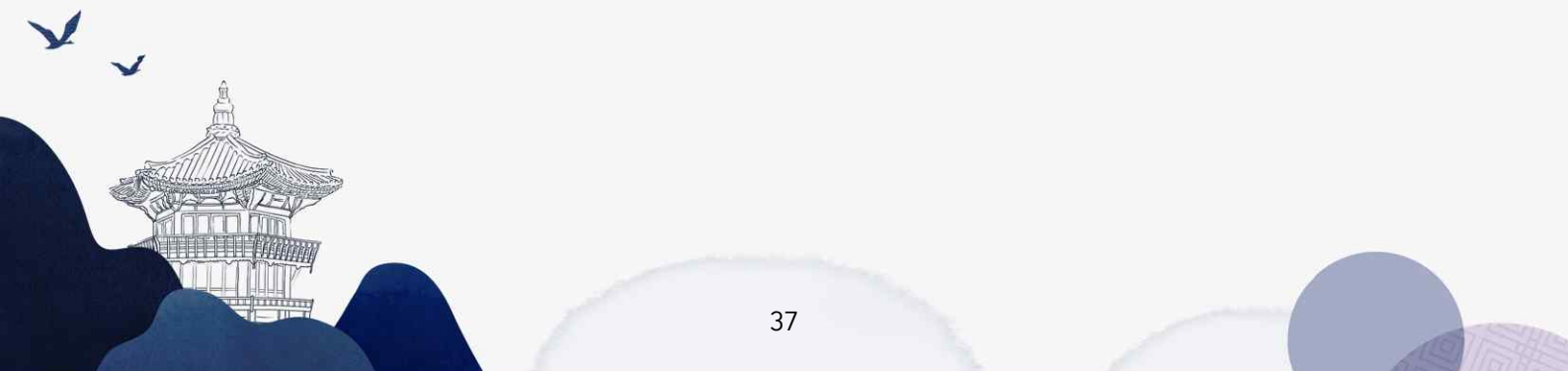
In addition, it contains the cases of Japanese oppression and atrocities against the Movement, the status of the independence campaign after the Movemen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Provisional Government, foreign activities for national independence by all walks of life, the struggle of the Independence Army and the battle of Qingshanli, the activities of young people and women, the struggle of the martyrs, and the atrocities of Japan in the West and North Jiandao with an investigation table attached.

And the appendix contains the world opinion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ns. It has the writing of H. B. Hulbert, an American, about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and the resistance of the Korean people, and articles in the newspapers of various countries such as China, Shanghai, and Britain, presenting the situation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Later, Bak Eun-sik became the second president when Rhee Syng-man was impeached for his petition for the League of Nations mandate, and when the constitution to abolish the presidential system became effective as of July 1925, he stepped down from the position of interim president. And he passed away at the Shanghai Mutual Aid Hospital at 7 p.m. on November 1st. And his remains, which had been buried at 600 Jing'an Park in Shanghai, were relocated to Seoul National Cemetery in August 1993.

So far, we have briefly looked at the turbulent life and thoughts of the author Bak Eun-sik. We have also covered his writing career. Next session, we will look at the background of writing Han'guk Tongsa.





11-3

Background and Motivation for Writing Han'guk Tongsa

Hello, students. Last time, we briefly looked at Bak Eun-sik's turbulent life, thoughts, and his writing activities. This time, let's take a look at the background of writing Han'guk Tongsa.

Why did Bak Eun-sik write this book during the rough times? Historians can write such books in the course of academic research, but above all,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era when the author lived. Here's the need to understand what kind of era it is. Also, what is the position of this book among various writings related to Korean history? We are going to focus on these issues.

The apparent reason for writing the book was the request of Datong Translation House, a publishing company based in Shanghai, China. At that time, Datong Translation House was preparing a series of modern history books from each country. British, German, French, Russian, Austrian, Italian, and Japanese history books were planned for the modern history of Powers, while Vietnamese, Goryeo, Mianma, Indian, Polish, Egyptian, and Jewish history books were planned for the modern history of collapsed countries.

This book is part of the modern history of collapsed countries, and seems to be the outcome that Bak Eun-sik finalized with the historical materials and manuscripts that he had prepared for a long time.

First, let's look a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writing. The year of publication was 1915, five years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of the Korean Empire. From this, you can imagine that this book was written against the backdrop of the Japanese invasion. In particular, as revealed in the content composition and the title Painful History of Korea, it is inseparable from this era in that it accused the Japanese invasion and dealt with important events in modern Korean history.



One of the clues that show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writing first appears in his letter to Kang Youwei. As already mentioned, Kang Youwei had a lot in common with Bak Eun-sik because he, too, was a reformist who campaigned for Wuxu Reform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and dreamed of Daedong (universal society).

Also, it is national history that I have not yet started even though I have long had the will. There are always records and biography in every individual's death, and if you can't build a painful history after a country of 4,000 years has gone, how can we say that it's a society where mankind exists?

How can this be in a country called the nation of culture for millennia?

In recent decades, the sacrifices of the loyalists has risen in a row, and if we don't collect and mark them, whose is the fault if it's not ours?

Both the gains and losses of our internal affairs and diplomacy could be warnings to the world, and much more, China is closely related, so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this for us to be helpful for China, little as it might be.

In addition, we cannot delay this even for a moment to inform everyone in the world of the miserable situation of Koreans.

But I've been wandering around and tumbling, and don't have the strength to do so, not able to start but suffering inside, without any help from comrades.

Would you please arrange it for me?

In this letter, Bak Eun-sik explains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s of Han'guk Tongsa in five categories.

First, in the East Asian historical tradition, whenever dynasties change, there has always been a recapitulation of history of the previous dynasty or country.

Second, the deaths of many loyalists must be recorded in modern Korean history.

Third, various history books were published in the course of the enlightenment movement in the later period of the Korean Empire. For example, the Biography of Euljimundeok, the Biography of Ganggamchan, the Biography of Yi Sunshin, the History of American Independence, The Fall of Vietnam, and A New Way of Reading History must have become important assets for Bak Eun-sik to write Han'guk Tongsa.

Fourth, China is close to Korea, so modern Korean history will be helpful to Chinese people.



Fifth, this kind of historical narrative is an important way for Korea to infor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need for its independence.

Therefore, this book aims to expose the nature of the Japanese invasion, and historically prove the legitimac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ultimately, it is imperative, as a member of the civilized world to write history

Among them, the first of the reasons to write Han'guk Tongsa is the biggest. In his conclusion, he emphasizes that we can maintain our country if we don't lose our national soul represented by the national religion, studies, language, and history. Even if we lose it, we can someday restore it by relying on the national soul.

This means that a country can only be regained by properly describing and preserving the painful history of its collapse. In short, he wrote this book because he concluded that there was no other ways to preserve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people as well as history, in order to regain the country that was taken away by the Japanese colonial rule.

So what significance does this book have in terms of the history of historiography? Is it meaningful just because it describes the painful history of a ruined country? Above all, he described modern Korean history not focusing on kings and their subjects, but focusing on the people and events. The author himself admits that he made up the chapters in the order of events imitating the new modern history books.

Of course, his description of Ahn Jung-geun still shows a pre-modern biographical narrative style. However, such a narrative style is exceptional. Rather, it not only makes up for the limitations of the narrative centered on events or themes, but also reinforces the enlightening aspect.



Next, his description breaks away from the traditional Sino-Barbarian dichotomy and adopts the view of history focusing on sovereign states. In the past, Chinese history was described first, followed by Joseon history. A major country other than one's own was described first. This is the case with Bak Semu and Min Je-in's *Dongmong Seonseup* (Children's First Learning), which is a children's history book. Furthermore, many history books positioned Joseon as a vassal state and described its history focusing on tribute relationship. But in this book, the historical narrative describes Joseon as a sovereign state on an equal footing with China.

Finally, it applies a modern historical narrative methodology based on causal relationships of the events and facts. At the same time, the author not only adds comments on facts and events at the end of the chapter, but also attaches his own opinions in annotations when the comments are insufficient.

As such, he tries to show his own historical perspective and evaluation by accepting some of the historical narrative systems of the previous period. In other words, his unique historical narrative system shows his intention to open the way to liberation by urging strict introspection on the country's ruin by applying the traditional historian's method of criticism based on modern historical narr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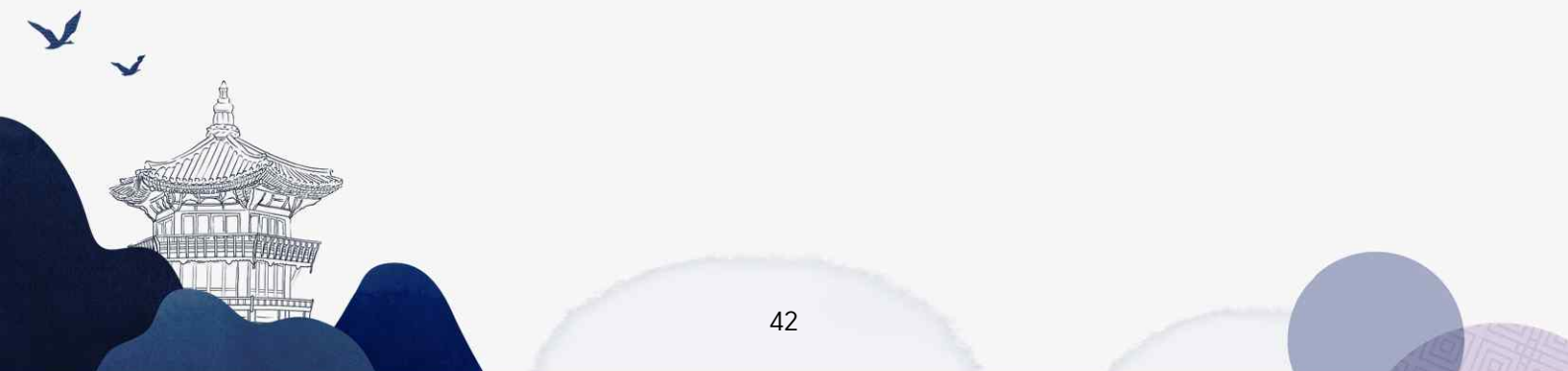
Therefore, his direct description of the Japanese invasion and the Korean people's movement to build a sovereign state based on causality in this book served as a strength for Koreans to continue the anti-Japanese national movement without yielding to the Japanese tyranny and crafty assimilation policy.

Another important thing is that he often emphasizes self-discipline and self-reliance, not only finding the cause of the fall of sovereign states in frustrated self-discipline and self-reliance, but also considering them the basis for restoring national sovereignty. For example, the Joseon government's failure to avoid its collapse depending only on the protective treaties with Western Powers reminds us that it lacked the ability of self-discipline and self-reliance. Because, as he says, "The so-called treaty is all just some pieces of writing on paper."



This i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his practical perception of history and modern historical narrative. In the end, the subject can be formed only through the experience of building one's own culture independently and through constant interactions with the outside world, so this book is a classic to read carefully as it seeks the direction of Korean culture today. It would be the best to understand the modern history of Korea if we read the Bloody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which is a companion piece to Han'guk Tongsa, and explore Koreans' anti-Japanese national movement, including the March 1st Movement.

So far, we have looked at the background of writing Han'guk Tongsa and its position in the history of historiography. Next time, we will look at the writing process and composition of Han'guk Tongsa.





11-4

Writing Process and Composition of Han'guk Tongsa

Hello, students. Last time, we looked at the background of writing Han'guk Tongsa and its position in the history of historiography.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the writing process and composition of Han'guk Tongsa.

This book is neither a general thesis nor an academic research paper. Nevertheless, it is written based on accurate facts. Let's take a look at how it was possible and what historical data it is based on.

Like other ordinary history books, Han'guk Tongsa is not a research paper and does not have footnotes. So it's unclear what kind of historical materials were used to write this book.

Considering that Bak Eun-sik said in a letter to Kang Yuouwei that he had not started the work, we can guess that he had not started the writing then. However, as stated here, he was clearly preparing to write because he felt the need and responsibility for the task. And there's data everywhere in this book that was just not available in China. For example, the Greathouse report, which investigated the murder of Queen Myeongseong, was thought to be obtained in advance.

Also, the description of the Gapsin Coup contains the detailed story directly heard from a friend who was involved in it, so it can also be assumed that he usually took notes like other literati, whether in the form of a diary or a draft. He was recording like any other aristocrat whether in the form of a diary or a historical draft. This is the same attitude shown by Hwang Hyeon's Maecheon Yarok (Maecheon's Unofficial History) and Jeong Gyo's Daehan Gyeonyeonsa (History of the Waning Years of the Korean Empire).

What data did Bak Eun-sik use to write this book? Although we can't identify the exact source of data, considering his introductory remarks stating that he referred to about 10 types, more than 10 pieces of data must have been used.



Newspaper articles, statute books, and treaty documents must be included, which the related laws and treaty documents transcribed throughout the book show well. And among them is the Greathouse's investigation report of the murder of Queen Myeongseong. However, the author himself confessed that there were some omissions data collection because he was very busy after 1904, when the political situation was changing urgently. Nevertheless, it seems that he had collected as much data as possible whenever he could.

In the case of the Gapsin Coup, not only did he collect Japanese politicians' evaluations after the political coup failed, but he also presented the Japanese reactions to the assassination of Gim Ok-gyun. The expression '30 years of the present king' in the section describing Donghak Revolution also clearly shows that the first draft was written before King Gojong's forced abdication. It looks like he had been collecting data for a long time.

In addition, he read the Wanguogongbao (A Review of the Times) published in the Qing Dynasty and reflected on overseas events and trends in his book. He wrote down the trends of the Japanese after the murder of Gim Ok-gyun in March 1894. Above all, while he was working as the editor in chief of the Daehan Maeil Shinbo and the Hwangseong Shinmun, he recorded and organized important data of that time. This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Ji Gyusik, who lived in Yanggeun, Gyeonggi-do, in the same period, left newspapers and organized them.

Considering that Bak Eun-sik was busy writing numerous textbooks and books since 1911, including Dongmyeongwang Silgi, Mongbaegeumtaejo, and Cheon'gaesomun-jeon, Han'guk Tongsa was completed based on the arrangement of materials he had worked on before.



In addition, he was also interested in the recently discovered or excavated epigraphs and mentioned the recently discovered Gwanggaeto Stele. On a separate page, he also made a title with the letters collected from the calligraphy of King Gwanggaeto. The structure of Han'guk Tongsa is as follows. At the beginning of the book are placed the introductory remarks, the table of contents, the preface of Kang Youwei and the introduction of Bak Eun-sik, the list of photographs, letters collected from Gwanggaeto Stele, and various photographs are arranged. In the end of the book, there are Bak Eun-sik's conclusion, Shin Gyusik's epilogue, Han Jin's postface, and an errata. The main tex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with a total of 114 chapters.

The first part consists of two chapters each outlines the geography and history of Korea. The second part consists of 51 chapters, which describe the series of events from the regency of Daewongun, to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Powers' struggle for interests. The third part consists of 61 chapters, detailing the process of Japanese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Empire in 1897 to the 105-man Incident in 1911.

Finally, I would like to tell you about several different versions, which are similar to Han'guk Tongsa. Some of them are currently misunderstood and others need to be further utilized.

First of all, in the case of Yakgi Pyeonram (A Guide to Concise Record), which is housed in Jangseogak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author is unknown currently, but most of the contents are the same as those of Han'guk Tongsa.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is book is a transcription of Bak Eun-sik's book.

Except for the main text, all the items are missing, and even the main text contains only important political events such as Imo Incident, Gapsin Coup, Donghak Revolution, Eulmi Incident, Righteous Armies, and murder of Kim Hong-jip. In addition, 'the sacrifice of martyrs including Min Yeonghwan' and 'Chinese patriot Pan Zongli killed himself by jumping into the sea' are listed at the 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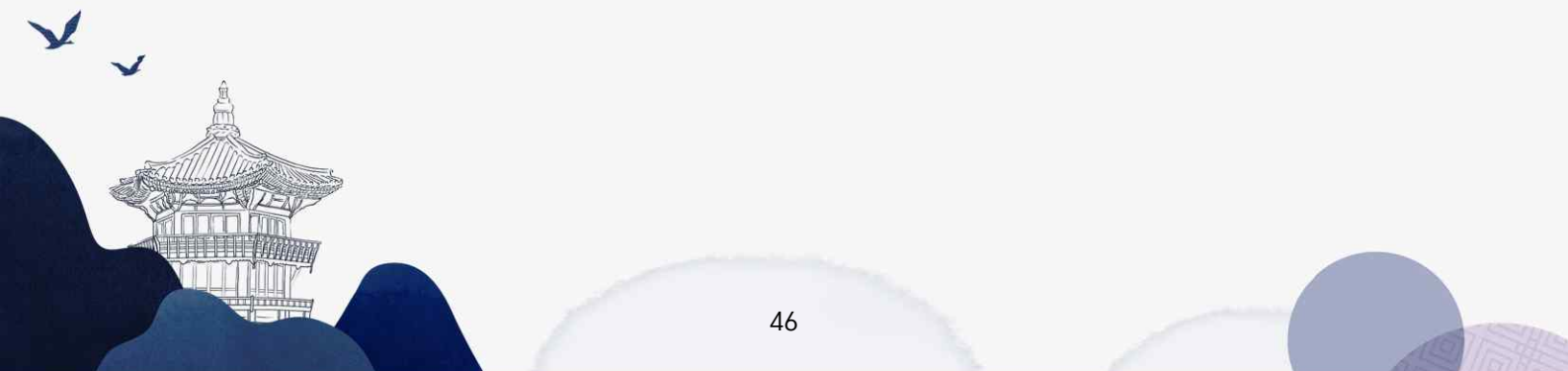
However, in the case of Imo Incident, articles of the same date are attached at the end, and in the case of Gapsin Coup, the story heard from a friend is omitted at all. Therefore, this book can't be said to be a draft of Han'guk Tongsa, but at least it can be assumed as a transcription of some of the contents of the draft.

On the other hand, Hanmalbirok (Secret Record of the End of Korea), which had been kept in the Bank of Korea's archives and transferred to Kyujanggak,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opposite. Unlike the Shanghai version, it is in the form of a collection of writings, and has only the main text and conclusion without introductory remarks, preface, introduction, and illustrations in front, and epilogue and postface at the back of the main text.

Other missing phrases are added to the upper margin of the page, with missing marks left on the body. Therefore, contrary to some researchers' assumptions, this book seems to be a transcription of Han'guk Tongsa after 1915, not the first draft of it.

In addition, after liberation, a pro-Japanese person edited and published Han'guk Tongsa. Also, a translated version of someone came out in Daegu. This, too, seems to have been published by a pro-Japanese person to hide his fault.

In the next session, we will look at the impact of Han'guk Tongsa, domestic and abroad.





11-5 Impact of Han'guk Tongsa, Domestic and Abroad

Hello, students. Last time, we looked at the writing process and composition of Han'guk Tongsa.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the impact of Han'guk Tongsa, both domestic and abroad.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impact of the arrival of the book in colonial Joseon. In today's terms, this book is censored and banned by Japan, so they had to smuggle it into Korea. Therefore, it had a tremendous impact on Joseon's literati as well as o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Let's see how they reacted. As soon as the book was published, it was introduced into Korea and read or transcribed and distributed. It couldn't come in directly from China, but came through Japan. Books coming in from China had to go through Japanese terrible surveillance and censorship, so it would not have been able to pass customs. The Japanese were desperately preventing the book from coming into Korea, and as they didn't succeed in doing so, they began to compile the so-called History of the Joseon Peninsula, which they alleged to be a scientific research of Korean history.

In other words, by thoroughly distorting and manipulating Korean history to suit the taste of Japanese imperialism, they tried to mask the truth of history and wipe out the identity of Koreans. Thus, they mentioned the purpose of compiling History of the Joseon Peninsula in relation to Han'guk Tongsa as follows.

A book by an overseas Korean, called Han'guk Tongsa, does not reveal the truth but reveals its fals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harm of these historical records that mislead the people is also huge.

At that time, the Japanese were in fear of Koreans participating in anti-Japanese struggle under the influence of Han'guk Tongsa. And their concern turned out to be a reality, and Koreans in China, Russia, and America were able to confirm the truth of the Japanese invasion and the passionate national movement of their ancestors by reading or hearing about this book.



First, in Hawaii, this book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Korean in 1917 and used as a textbook for Korean American students. Kim Byeongsik translated it into Korean in June, 1917 with the help of the Gukmin Sinbo (National News), run by Korean-Americans in Hawaii. In September 1917, an unknown priest known as Gim living in Chita, Russia, translated the book into Russian. In addition, Koreans in Korea also secretly read it, hiding from the harsh Japanese eyes, or the Japanese used some excerpts for reference.

For example, Jang Deoksu, who was an international student in Tokyo, ordered 200 copies of it from Shanghai and brought them into Joseon through Japan. Ha Gyeomjin, who was a representative Confucian scholar in Yeongnam and engaged in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 cited some of the conclusions of Han'guk Tongsa in 1930. He criticized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s plan to eliminate the book, and actively agreed with Bak Eun-sik's opinion that 'if the national history does not fail, the country will not fail.'

Jeon Wu, another representative Confucian scholar in late period of the Korean Empire, even confessed that he read page 133 of the third part of it in Gyehwado, Buan-gun, Jeollabuk-do, and realized only then that in 1907, Emperor Gojong originally intended to be the regent for the crown prince, but he was threatened and could not escape the forced abdication. It was distributed to the extent that Jeon Wu read the original book.

Jeong Inbo recalled Bak Eun-sik in 1925, revealing that he wrote it along with Ahn Junggeun-jeon (Biography of Ahn Junggeun) when he stayed in Shanghai. Since then, even under the wartime system, Han'guk Tongsa was secretly distributed to some literacy groups and read avidly.

Gim Dong-uk, who was born in 1922 and later succeeded as a Korean literature scholar, recalled that he would have passed the Advanced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Japan if he had not read the book in the early 1940s while attending the law department of Chuo University. Han'guk Tongsa was a must-read book for some Korean literacy groups.



And so the Japanese began the process of distorting the books. This is Gakguk Geunsa (Modern History of Each Nation), currently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is book summarized the contents of Han'guk Tongsa but omitted the contents that were unfavorable to them. For example, they did not write down the criminal acts they committed in the assassination of Queen Myeongseong and omitted the fact that they interfered with the Independence Association's campaigns behind the scenes.

They even distorted the truth by omitting a large part of the Japanese invasion or urging the reader to refer to history books written by the Japanese. For example, the Korean people's appeal movement against Japan-Korea Treaty of 1905 was defined as 'rash behavior,' citing books by the Japanese, and the struggle of Korean imperial soldiers was called 'disturbance.'

The people in this photo are staff of the Central Advisory Council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ho took the lead in distorting history.

On the other hand, Chinese intellectuals, using Bak Eun-sik's Han'guk Tongsa to pursue their own national interest, created literary works based on Joseon's collapse, such as Queen Min of Korea, Drawing the Romance of Korea's Subjugation, and Hague Envoy Incident, and tried to stimulate the Chinese people's sense of crisis. In short, they also distorted our history into an inferior one, using modern Korean history to learn their les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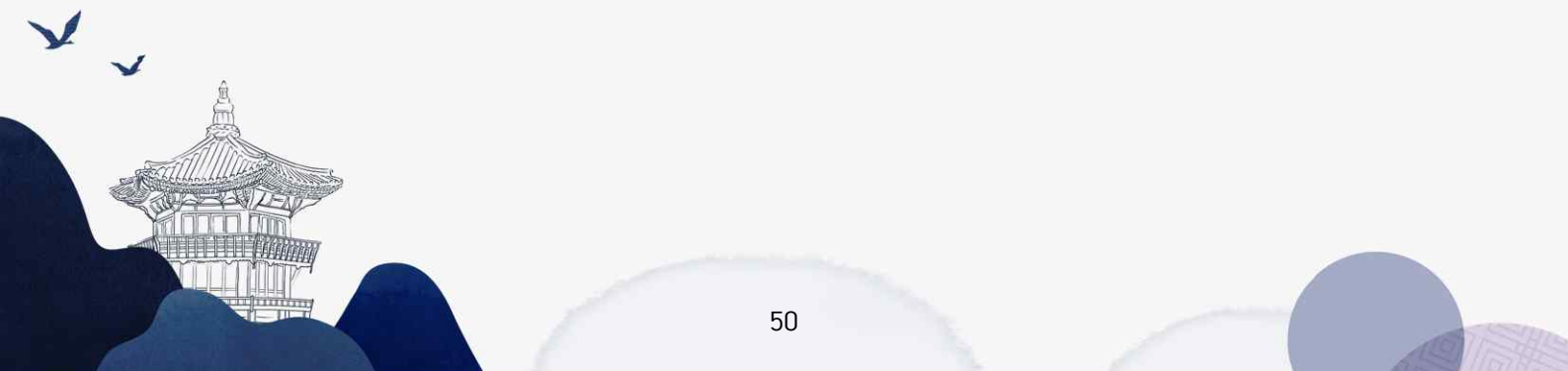
Distortions are not done just by the Japanese and the Chinese.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some Koreans have disguised Han'guk Tongsa as their own work or translated it incorrectly. You should go to libraries of leading universities and search for the book. It is important to look far, but it is also time we inspected ourselves closely.

So far, we have looked at the impact of Han'guk Tongsa, both domestic and abroad.

This is the cover of the translated and annotated edition of Han'guk Tongsa, which led me here. I put a picture of a Korean Empire soldier taken by Frederick McKenzie, a British war correspondent, after disbanding the army in 1907. What do you th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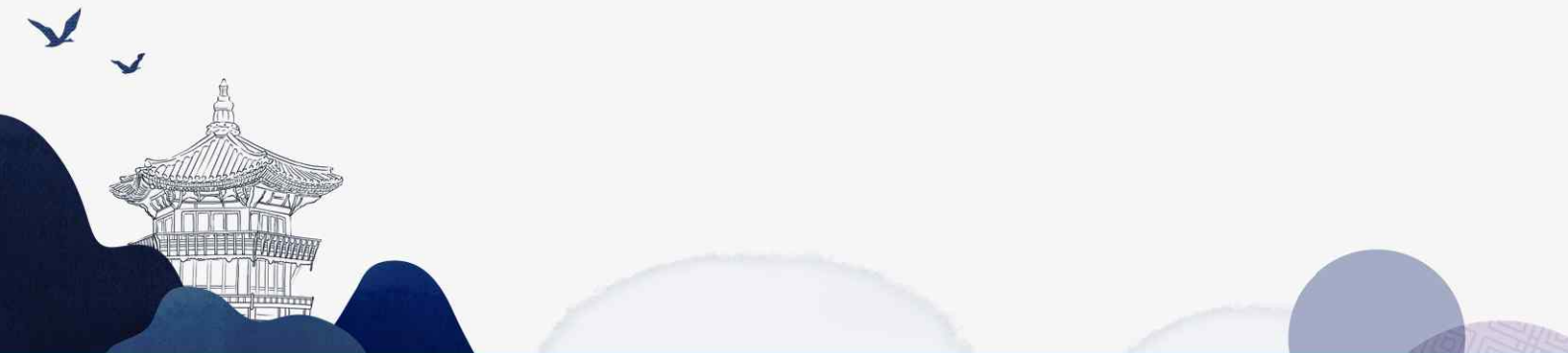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We have looked at the life and writing career of Bak Eun-sik,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writing Han'guk Tongsa, and the impact of the book on Korea and abroad. In the next lecture, we will go on a full-fledged time trip through the main contents of Han'guk Tongsa. I'll see you in the next lecture.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 11 周

《韩国痛史》的理解

11-1

在世上广为流传的《韩国痛史》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韩国古典新读》之《韩国痛史》课程主讲的金泰雄。这节课是我们的第十节课，以“《韩国痛史》的理解”为主题。

我们这节课将以朴殷植的代表作品《韩国痛史》为中心，学习作者朴殷植生平的创作经历，《韩国痛史》的创作背景和过程，以及在国内外产生的影响。

上节课，大家学习了张志渊的《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探究了韩国百科词典编撰及其他方面的相关历史。这节课，我们将基于上节课的内容，学习和研究有着正统近代史书之称的，朴殷植的作品《韩国痛史》背后的史学史的价值和历史意义。

《韩国痛史》是朴殷植于1915年在中国上海的大同编译局出版的历史书，从1863年大院君政权时期开始，到1911年105人事件为止，记叙这一段时期内容的当代史作品。这部作品的内容就像现在的韩国近代史(contemporary)，在那个时期看来，相当于一部现代史的作品。

大同编译局是因为戊戌变法运动而出名的中国的康有为的弟弟康广仁运营的出版社。在这里出版了多国史系列的作品，其中就包含了朴殷植的《韩国痛史》。康有为为这本书写了序文。

首先，大家可能会将这本书误认为其他书，这本书的题目是用汉字标识的《韩国痛史》。和大家熟知的《韩国通史》又有什么样的差异呢？

我们经常使用的通史是什么意思呢？首先，词典里对“通史”的定义是历史记述（记述，complete history）的一种形式”，并且这种记述并不限于某一时期的历史，而是贯通所有时代的历史概要。

实际上，在韩国，有一部韩祐勋教授主编的《韩国通史》。除此之外，边太燮教授将自己的韩国史概论书命名为《韩国史通论》，李惠昶教授将自己创作的韩国经济史作品命名为《韩国经济通史》。因为作品叙述的时期贯通了古今。



我们今天这节课要讲的这部《韩国痛史》，其中的“痛史”二字，“痛”是疼痛的“痛”，史是历史的“史”。为什么朴殷植会把自己的著作命名为《韩国痛史》呢？像在序文里提到的那样，韩国的亡国史在全球的亡国史中也是最为悲惨的，有数不尽的冤屈。

他提到了强国对弱国实施了占领统治，以及由此引发的各种惨事。他强调韩国像台湾一样遭受到了不公平的统治，连韩国人的财产都被日本人抢走了。

首先，瑞典将挪威并入了自己的国家，奥地利将匈牙利并入了自己的国家，但是并没有差别待遇。而且，英国也是在统治加拿大的过程中，不仅有宪法的保障，还设立了议会。还有，就算是英国统治印度，法国统治越南，美国统治菲律宾，在统治过程中都很好地保护了百姓的财产。但是，日本对韩国的统治并不是这样的，这也成为了韩国的惨痛历史。

并且，朴殷植想通过自己创作的书籍表现其对国家灭亡的悲痛，才写了这本书，所以将其命名为悲痛的历史。但是，作者并没有用这种悲痛的历史观点来看待过去，而是想要留下一本历史书籍，以复兴国家。简而言之，朴殷植认为犹太人亡国后，辗转于世界各处，但始终没有失去犹太人这个称呼，是因为他们保留了祖先们的传统，才使这一切成为可能。

印度现在虽然是英国的殖民地，但因为印度精神的支柱婆罗门流传了下来，所以无论什么时候，印度都有希望复兴。与之相反，墨西哥的印第安人在西班牙亡国后，传统文化和文字全部都灭亡了，只有人种保留了下来，因为精神层面的事物全部都灭亡了，所以这个民族复兴的可能性也不大了。

朴殷植认为如果国家是形体的话，那么历史就是精神。再次强调精神是魂。大家可能比较难理解魂这个概念。所谓魂，是指人的精神，用英语翻译的话，可以翻译为soul, spirit, ghost等词语。

如果再具体一点来说，魂存在于身体之内，可以统领身体，且具有生命力，是可以永存的，非物质性的，超自然的存在。这个“魂”，其实和我们经常使用魂飞魄散这个词语，或者丢了魂这个说法中的“魂”，意思相近。

所以，他认为如果是作为形体的国家灭亡了的话，但魂还存在的话，那么还是有机会复活的。这个时候，可以把历史看作是魂，如果记录了过去的历史，让人们不忘记这些事情的话，那国家还是有再次复兴的可能性。



这节课，我们简单地学习了《韩国痛史》这部作品取名为“痛史”的原因，一起探究了在与普通的概论书不同的这部作品中，作者将惨痛的历史融入作品之中的心情。

下节课，我们将一起学习这本书的作者朴殷植的生平和创作活动。





11-2 朴殷植的生平和创作活动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简单地学习了《韩国痛史》这部作品取名为“痛史”的原因，一起探究了在与普通的概论书不同的这部作品中，作者将惨痛的历史融入作品之中的心情。这节课，我们将一起学习这本书的作者朴殷植的生平和创作活动。

其他作品也相仿，为了正确地掌握书籍的价值和意义，有必要了解撰写这部作品的作者是谁，以及作者的生平，还有他在创作过程中的想法。就算想把作者和书籍区分来看，两者也有无法分离，密不可分的关系。

但是，近代有很多人物因为日本帝国主义的监视和检查，无法留下对自己的记录，反而有很多错误的信息。特别是出生和成长的过程，与现在的习惯不同，当时无法留下相关的信息或正确的信息。

朴殷植的情况也是如此。流传开来的信息只有他的籍贯是密阳，字是圣七，号是谦谷或白岩。除此之外，通过他的照片和宋相焄的《骑驴随笔》这部作品可以知道，中等身材，颧骨凸出，他是一个时常面带微笑，十分快活潇洒的人。正如大家看到的半身像那样，这是在2015年首尔大学师范学院学院的朴殷植先生的孙子辈的赞助下，建造的半身像。

但是，对于他的出生地有争议。有人说是黄海道海州，也有人说是黄州。还有人说是平安道三登。相关的历史内容的确令人很容易混淆。出生地之所以重要是因为成长过程中的教育关系，以及出生地的环境都对于人物的成长有很大的影响。近来有了定论，指出他是出身于黄海道黄州，从很早的时候就开始在黄海道一带闻名，甚至被称之为天才。

还有一个对推测人物生平经历有重要影响的因素是他出生的年份。他出生的那年直接或间接性地对他的生平产生了巨大的影响。他出生的年份是1859年哲宗10年。在这一时期，有许多外国船登陆了朝鲜半岛的沿岸，这是东西方积极寻求通商机会的，西势东渐的时期。

特别是黄海道，与西方列强占领的山东半岛位置靠得很近，有很多外国船在此出没。通过朴殷植小时候的故事可知，他可能会担心西方洋鬼子入侵朝鲜。因为1866年法国军队以及1871年美国军队入侵了与黄州相邻的江华岛，这些事件都令当时的社会感到震惊。特别是1866年，与美国商船舍门将军号进入黄州相邻的大同江渔区。



在那之后发生的丙寅洋扰和舍门将军号事件，以及辛未洋扰事件，作者都进行了详细地叙述，并且收集了大量的资料。从小时候开始，作者本人就亲自听到了很多这样的战斗消息，所以才会对这个领域特别感兴趣。这些事件对于朴殷植来说是一个契机，让他后来成为了一个朴实且具有民族意识的人。

并且，他在势道政权结束后，以及大院君政权的初期，时常会听到改革的声音，所以他对于改革的必要性，比任何人都要有共鸣。1862年，在他4岁时亲眼目睹了在三南地方发生的民乱，以及接下来的大院君政权的改革过程。

所以，他在17岁时为了增长见闻，离开了故乡，开始拓宽自己的学习范围。当时，其祖父和父亲作为密阳朴氏的后代子孙，通过农业经营和儒教学习名声大震，从他们具备这样的学习条件，可以推测他们的经济基础也不错。

在那个时候，遇到了安重根的父亲安泰勋。当时，在那一带地区，安泰勋和朴殷植一起被誉为“道内两神童”，他们的才能得到了大家的称赞。再看看他的学习经历，当他搬到平安道三登后，又有了新的转机。1880年，22岁时，去了京畿道广州杜陵，拜申耆永和丁观燮，洪奭周的孙子洪承运为师。

有少数的人主张他是在去了京畿道广州后，才开始接触到丁若镛的学说。关于那段历史的传说，最近，奎章阁韩国学研究院盧官汎教授在著作《朴殷植评传》中指出，作者受到了京华士族丰山洪氏洪奭周学派文学的影响。这个时期，朴殷植应该深刻地领悟到了《大明义理论》中的内容，而这部作品也是京华学界撰写明代历史书籍的基石。

所以，对于《韩国痛史》，这部作品也起到了根本性的作用。对于那段历史，这种看法看起来是合理的。但是，对于他在广州是否只学习了洪承运的学说，这一点还存在疑问。我想，他也接触到了与洪奭周交好的丁若镛的学说。后来，通过他发表的皇城新闻的社论，可以看出他十分关注柳馨远和丁若镛，也开始与这两位学者结缘。

他像当时所有的青年一样，都抱着扬名立万的梦想，为了实现梦想在1882年24岁时来了首尔在那个时候，他目击了壬午军乱，甲申政变，东学之乱等事件。

所以《韩国痛史》中关于壬午军乱的内容，相较于其他的事件更为生动形象，有种像亲自听闻的感觉，据推测这应该是朴殷植直接从当时民众口中听到的内容。



还有，基于这样的经验，为有权势的家族，制定了战后的对策，并呈报给了政府。对于有权势的家族，并没有指明是哪个家族，通过壬午军乱的爆发背景，可以推测出改革方案的内容。据推测，当时可能是改变了闵氏戚族势力专制和剥削的局面。

接下来是1884年的甲申政变，也是他亲眼所见。后来，基于朋友口述的内容，栩栩如生地复原了甲申政变事件。然后，他放弃了扬名立万的梦想，移居乡下，受到平安道具有代表性的道学先生朴文一和朴文五两兄弟的影响，成为了文人。无论如何，应该是他看到了当时前途黯淡的政局，但并没有沉溺于过往，或者成为有权势家族的门客，相较于谋取一官半职，最后选择了通过学问研究探索新的发展方向。

并且，不久之后，和朴文一兄弟有关系的南廷哲，被下放到平安道担任观察使，并且通过了乡试。在那之后，闵丙奭来到平安道担任观察使，也成为了守卫作为箕子祠堂的承仁殿的首领。在学术界有一定的名望，所以走上了仕途。当时，闵丙奭十分优待文人和留学生，为王室在平安道建立了深厚的群众基础。

并且，在那个时期黄海道和平安道发生了民乱，可以感受到1880年代闵氏戚族政权的掠夺和当时群众生活的痛苦。1894年，爆发了东学革命，收到了闵丙奭的指示，去了首尔，遇见了闵氏政权的实权人物闵泳骏，在审时度势后。他听取了政府关于农民战争的对策。

但是，因为中日甲午战争和甲午改革，闵丙奭失去了官职，朴殷植的梦想也就此停摆了。而在这个过程中，他搬到了原州，在原州的时候，他应该也听到了不少关于紧张动荡的局势发展的信息，当时，闵丙奭于1894年12月被流放到原州，朴殷植也随着他去了人生地不熟的原州。

在此处目击了乙未义兵的聚义和人民的惨状，反省了已有的理学的不足之处，体察到了人民的苦痛，提出了新的发展道路，即要顺应形势进行改革，最后探索出了时务改革论。

在不久之后，建立了大韩帝国，闵丙奭也开始正式开始重返政治界，他在1898年40岁的时候重新回到了首尔。这个时期，在首尔，他受到了很多不同的流派和思想的影响。他摆脱了理学的影响，他曾一度认为理学是这个世界的全部，他对诸子百家，佛教，基督教，科学等学说产生了兴趣。迎合时势的变动，即天下大势和时局现状，改变了自己的世界观，可以看出他是一个懂得变通，审时度势的人。

如果是儒学者的话，会很重视周易和中庸的传授。如果是这样的话，他应该是有劝同门修学的朋友们研究新的学说。而且，1898年，他提交了戊戌意见书，讨论了荐举制实行方案。他提出了人才选拔规则和人才选拔标准，基于此考察荐举大臣和观察使的人，在赋予官职后，举荐的人也需要负责。



1900年3月31日，其被任命为汉城师范大学教官，教授汉文和伦理等知识。在这个过程中，他应该是受到了闵丙奭的推荐。他在这个地方切身感受到了，被称之为师范学校的教育机关的特性，以及在师范学校教授分科学说的重要性。

他作为教官，主张进行教育改革，之后因为母亲去世，他辞去了教官一职，开始在不同领域进行活动。在1901年发生了大饥荒，他在提交的《辛丑意见书》中提到，为了赈灾，建议从外国进口粮食。事实上，当时的政府进口了安南米，进行赈灾。这种做法与之前不同，是使用了近代贸易的方式，实施赈灾的新手段。

他的著作《学规新论》，主张以儒教的观点为基础，支撑新政的权威性，积极地接受了新学说的观点，巩固了自强自立的基础。

1905年，在乙巳勒约签订后，《学规新论》这部作品受到了关注，他开始以媒体人的身份进行活动。作为《大韩每日申报》的主编，发表了对乙巳勒约签订持反对观点的文章，开始提出社会改革的观点。特别是通过副刊新闻表达了其认为乙巳勒约的不当之处，这些观点后来也被广泛地流传开来。在那之后撰写的《韩国痛史》这部作品中，比任何人都详细地撰写了乙巳勒约签订的背后原因，这也是因为其拥有比较完整的相关内容的资料。

在《信教自强》的文章中指出，就算国家的财力和武力很弱，如果保全了自己国家的宗教和历史的话，独立精神也不会覆灭，那么国家政权也有恢复的希望。这就是在《韩国痛史》中绪论部分强调的国魂论的原型。

在大韩帝国面临的危机面前，提出了教育振兴的观点，强调了需要提升自强意识。并且，在西友学会总会出任师范夜校的校长，当时设立了民立师范学校，并且自主地培养了一批教授，这所学校取代了落入日本人手里的汉城师范学校。他加入了大韩自强会，将他的自强思想推广开来。1908年4月，他以评论员的身份加入了皇城新闻社。

并且，在那个时候，他已经从朱子学者，转变为了阳明学者。在1907年，高宗被迫退位后，捍卫主权的可能性变得更低了，看到部分学会和政治势力欺负百姓且越来越亲日的现象后，他开始了对本然之良心的探求。



基于此他们开始变为阳明学者，阳明学强调心即理和知行合一。即通过自身的良志，或者说是善良的本性，切身地感受到世人的痛苦，并将这份痛苦作为自身的痛苦，从而救赎世人，这是一种积极的救世精神。

现在，他在强调新知识的同时，也强调新道德。就这样，1910年8月，在亡国前后，默默地出版了《高等汉文读本》，脱稿了《王阳明实记》这部作品。基于互助论中提到了尊重和保护多地区的人们多种多样的生活，摆脱了之前信仰的社会进化论中的民族主义，开始梦想建立各民族共存的大同社会。

但是，在1910年亡国后，朴殷植在国内的活动也结束了。1911年，他流亡到西间岛怀仁县，开始在大宗教运营的东昌学校和施教堂活动，在这一时期他撰写了《大东古代史论》和《东明圣王实记》。并且，他还撰写了《梦拜金太祖》等作品，这些作品都摆脱了华夷论的历史观，女真族等北方民族都被视为檀君的后裔，北方民族的历史也属于韩国民族史的一部分。

《梦拜金太祖》这部作品，主要叙述了朴殷植在金国遇见了太祖，从太祖口中听到民族运动方略的故事，这些作品重点想要培养群众的民族意识和恢复国家政权。并且，在书中，打破了国际秩序和社会秩序之间的不平等。而且，把构建了一个国家之间和人与人之间都非常平等的新文明，作为赋予大东民族青年的历史重任。

在这部作品中，把民族主义作为基础，主张国家之间奉行平等互惠的原则，同时具备了国际主义的视角。和申圭植一起成立了同济社，他自己担任了同济社的总裁。在这里建造了博达学院，进行军事教育。在那之后，这成为了以抗日运动为目的聚集在一起的中韩知识人发展社团组织的基础。

朴殷植去了沿海州后，于1917年7月参与了赵素昂的《大同团结宣言》的起草，成为了《韩族公报》的主编。

三一运动之后，在上海成立了大韩民国临时政府，临时政府在巴黎和会后召开的国际联盟会议中，决定请求他国对韩民族的独立予以支持。接着为了准备必要的资料，同年7月他成立了临时史料编纂会。当时，朴殷植开始着手韩日关系史的编撰，同年9月出版了4册的《韩日关系史料集》。

朴殷植从那时开始了对独立运动史的撰写。所以，他在创作的过程中，可以使用为了编撰史料集而收集的大量的资料。特别是以史料集的第2册至第4册收录的内容为基础，1920年完成了创作。于1920年出版的他的名著《韩国独立运动之血史》，正是他的努力成果。



在这部作品中，参与了民族运动的作品，融入了自身的经验和见闻。这本书摆脱了传统历史叙述方式的编年体或纪传体，选择使用了近代历史学的叙述方式，以主题，时间，事实进行分类的体裁。我们看看书籍的主要内容，在上篇中，记录了韩民族的简史和大韩帝国末年的历史事件，以及日本帝国的侵略政策，和民族对侵略的反抗，以及以朝鲜总督府为中心的日本帝国主义的暴政等内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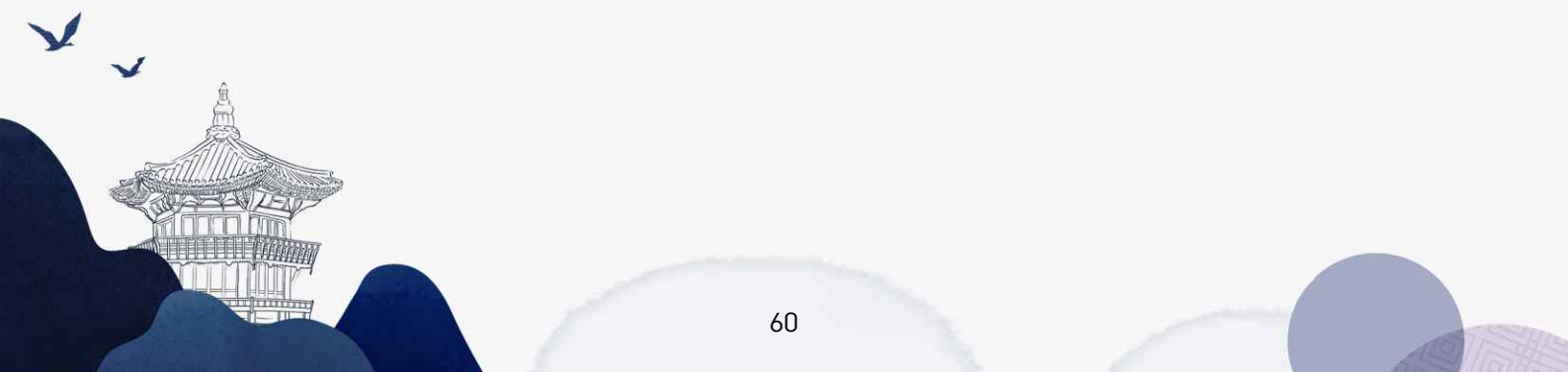
在下篇中，比较了韩民族和日本民族，揭示了两个民族无法融合的，水火不容的关系。并且记叙了在三一运动开始之前，国内外韩国人的活动和独立运动，三一运动的爆发和进行过程等内容。还有在国内小城市和海外为了三一运动集会的次数，被检举的人数，死亡的人数，受伤的人数，以及入狱的人数等统计学维度的数据指标。

除此之外，还记录了三一运动遭到日本帝国主义的打压和日本帝国主义的野蛮行径等事例，和三一运动以后的独立运动情况。具体来看，有临时政府的建立，还有为了实现民族独立各界的对外交流活动，独立军的斗争和青山里大捷，青年和妇女的活动及烈士的斗争等内容。还包括了在西间岛和北间岛地区的一系列野蛮行为和关于那些惨状的调查表在内的内容。

在附录中，收录了关于韩国的独立运动的国际社会舆论。美国人赫尔伯特 (Hulbert, H.B.) 撰写了关于韩民族对于日本帝国主义侵略韩国的反抗为的文章。以这篇文章为代表，在中国（上海）和英国等多国的新闻中，都出现了介绍韩民族独立运动状况的文章，作者选取了部分文章进行记载。

在那之后，朴殷植因为国际联盟委任统治论而遭到弹劾，在当选第2任总统后，1925年7月废止了总统制的宪法开始实施后，他卸任了临时总统一职。他于同年11月1日下午7点，在上海共济医院去世。他的遗骸当时被安葬在中国上海静安寺路公共墓地600号，后来于1993年8月被送返韩国，并安葬在国立墓地。

这节课，我们简要地学习了朴殷植的峥嵘岁月和思想历程。还研究了创作活动。下节课我们将一起学习《韩国痛史》的创作背景。





11-3 《韩国痛史》的创作背景和动机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简要地学习了朴殷植的峥嵘岁月和思想历程，还有他的创作活动。这节课，我们将一起学习《韩国痛史》的创作背景。

朴殷植在艰难的岁月中为什么会撰写了这本书？历史学家可能会在学术研究过程提到这部作品，最重要的影响因素应该是作者生活的时代。所以我们有必要知道作者生活的时代到底是一个怎样的时代。在那么多以韩国史为主题的作品中，这本书处于一个怎样的地位？我们带着这些问题开始今天的学习。

对作者撰写这本书起到直接影响的契机是，其收到了来自位于中国上海的出版社大同编译局的邀请。当时的大同编译局，正在准备出版各国的近史集系列。计划强国近史的内容由以下部分组成：英国史，德国史，法国史，俄罗斯史，奥地利史，意大利，日本史等内容。亡国近史的内容由以下部分组成：越南史，高丽史，缅甸史，印度史，波兰史，埃及史，犹太史等内容。

这本书作为亡国近史系列的一部分，他准备了很长一段时间的资料，最终完成了原稿和脱稿。

首先，我们来看看创作的时代背景。出版的年份是1915年，当时日本帝国主义已经强占大韩帝国5年了。从这点来看，这本书撰写于日本帝国主义侵略时期。特别是在这本题目为《韩国痛史》的作品中，如其内容构成所示，揭露了日本帝国主义的侵略，提到了韩国近代史的重要事件，从这点可以看出，这本书和这个时代紧密相连。

想要寻找创作的时代背景的线索，就要先看他给康有为写信的内容。我们在前面已经提到了康有为这个人物，清末爆发的变法自强运动是一场改革运动，因为康有为梦想实现大同社会，而这点也和朴殷植的追求相似。



在这一段国家历史中，虽然我有青云之志，但却无处施展。一般来说，一个人的死亡一定会伴随着行状和立传。四千多年的江山灭亡，无法只写一部痛史。怎么会有这种人类存在的社会，怎么会有在这种有着数千年文化的国家发生这种事情？最近数十年间，忠臣义士殉国之事接连发生，但是全部都安安静静地处理了，没有进行表彰，这到底是我们的错，还是谁的错？日本帝国主义的内政和外交的得失，全部都成为了历史的训诫。更何况其与中国有着密切的关系，我们和中国的关系是万中选一的，没有比这个更重要的事情了。想要向世界所有人告知我们韩国人悲惨的历史，即使是让他们花片刻的时间了解我们的历史，也要尽快完成此书。但是并没有止步于琉璃战败，在没有同道中人帮助的情况下，只是生了心病而无法着手。或许先生也为此付出了不少调解的努力？

在这里，我们把朴殷植的韩国痛史的创作背景和动机分为了5个因素进行说明。

第一，对于东亚历史传统中王朝变革的时期，一定要整理以前的王朝和国家的历史相关的资料。

第二，在韩国近代史中有许多的忠臣义士殉国，一定要记录相关的内容。

在大韩帝国末年，启蒙运动的过程中，出版了各种各样的历史书籍。例如，《乙支文德传》，《姜邯赞传》，《李舜臣传》，《美国独立史》，《越南亡国史》，《读史新论》等作品，以及朴殷植之后创作的《韩国痛史》，都成为了重要的资产。

第四，中国和韩国有着十分密切的关系，所以韩国的近代史对中国人也有不少的帮助。

第五，这种历史叙述的内容是一种韩国向国际社会告知其独立的必要性的方法。

从这点来看，这本书以直接揭露日本帝国主义的本质，从历史的角度证明韩国人独立运动的正当性为目的。最终，韩国作为文明国家和文明世界的一员，对其历史编纂的正当性进行了说明。

其中，对于韩国痛史的创作动机影响最大的是第一个因素。他在结论中提到，如果国教，国学，国文和国事这四个部分组成的国魂没有丢失，那么国家还是有复兴的希望，尽管国家灭亡了，但随时都可以依靠国魂找回国家。

这是因为只有完整地叙述和保存灭亡的国家的悲痛历史，才可以找回国家。总之，他为了挽救落入日本帝国主义手中的国家，有必要保护好民族，但是在找不到其他方法来保护民族的集体记忆，所以选择撰写这本书。



如果是这样的话，这本书具有怎样的史学史的价值呢？如果只是记叙亡国的悲痛历史，那又具有怎样的意义呢？很重要的一点是，他摆脱了以王和大臣为主的记叙方式，以普罗大众作为中心叙述韩国的近代史。作者自己也效仿近世新史，将事件按顺序排列，构成了章节的内容。

尽管在安重根的叙述方式中，还是可以看到前近代列传的叙述方式。但是那样的叙述方式令人感到有些意外。这种方式弥补了以事件史或主题史为中心的叙述方式的不足，有着启蒙的作用。

然后，其摆脱了华夷论的历史观，使用了主权国家的历史观进行叙述。之前一般是先叙述中国史，然后再叙述朝鲜史。最先叙述的不是自己国家，而是其他的大国。被誉为儿童的历史书的朴世茂和闵齐仁创作的《童蒙先习》这本书也是如此。很多作品都是把朝鲜作为诸侯国，按照朝贡时期其和中国的关系进行记叙的。但是，在这部作品中，把韩国放在和中国平等的关系上，以主权国家为中心展开对于历史的叙述。

最后在结尾部分，使用了从因果关系来看待各种事件和事实的历史叙述方法论。所以，不仅在章节的结尾部分加入了对事实和事件的评论，在评论结尾的部分还有作者的批注，附记了自己的评论。

采用了部分以前时期的历史叙述体系，来阐述作者的历史观点和评价。作者这种独特的历史叙述体系，以近代历史叙述方式为基础，使用了传统史官的褒贬方式。在作品中表达了对亡国进行深刻反省的敦促，以及其想要开辟一条光复国家的道路的志向。

所以，作者在这本书中，立足于日本帝国主义的侵略和韩国的主权国家建设运动的因果关系，采用了正面叙述的方式。而这些内容也成为了韩国人在受到日本帝国主义的暴力镇压时，不屈服于日本帝国主义精心设计的同化政策，持续推进抗日民族运动的力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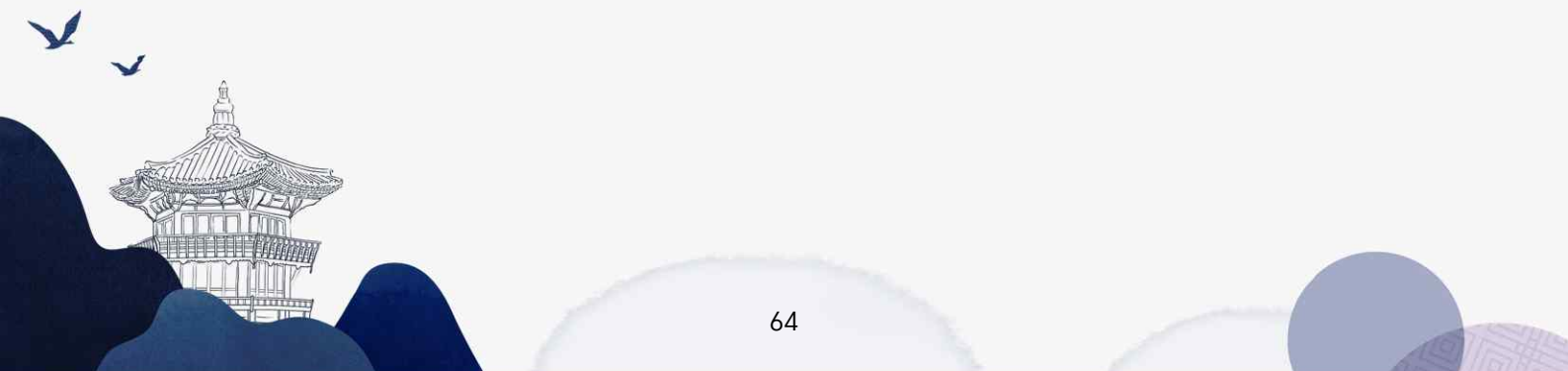
还有很重要的一点是，他随时随地都在强调自强和自立，主权国家失败的原因是因为没有实现自强和自立，而在那之后，恢复国家主权之后，国家开始具备了自强和自立的特征，例如，朝鲜政府一味地相信和欧美签订的修好通商条约，最终还是无法避免亡国的结局，这是因为其不具有自强自立的实力。因为正如作者所说的那样，“所谓条约协定，不过是把整理好的文字呈现在纸上而已”。

他的现实性历史认知和近代历史叙述的历史意义就在于此。作品不仅包含了最终主体的形成和发展，和自身文化的自主建设经验等内容。而且从有可能受到外部持续不断的相互作用这点来看，这部作品探索了韩国文化的前进方向，是一部值得细细品读的经典作品。



《韩国独立运动之血史》作为《韩国痛史》的姐妹篇，包括了可以三一运动为代表的韩国人的抗日民族运动等内容，对于韩国近代史的理解起到了锦上添花的作用。

今天我们学习了《韩国痛史》面世的时代背景和史学史的地位。下节课，我们将学习《韩国痛史》的创作过程和构成方式。





11-4 《韩国痛史》的创作过程和构成方式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韩国痛史》面世的时代背景和史学史的地位。这节课，我们将学习《韩国痛史》的创作过程和构成方式。

这本书既不是普通的论文，也不是学术研究书。但这本书是根据正确的史实进行编写的。我们来学习一下这一点为什么会成为可能，以及依据的史料是什么。

韩国痛史并不是普通的通史或时代史的研究论文，并没有脚注。所以，这本书的创作内容到底出自于哪些史料，目前尚不明确。

首先，在朴殷植写给康有为的信件中，他提到目前无法进行痛史的创作，所以据此可以推测作者那时应该还没有开始进行作品创作。但是，正如这里指出的一样，已经感受到了作者认为痛史创作的必要性以及其责任意识，可以明显地感受到作者已经在做创作的前期准备。还有在很多地方可以看到在中国完全找不到的资料。最具有代表性的是，在写书前获得了调查明成皇后弑害事件的格雷特豪斯报告书。

特别是关于甲申政变的叙述内容，是从相关的朋友处听到具体的事件始末内容，从这点来看，作品的内容是通过日记的方式，以史稿的形态呈现，作者选择了和其他知识分子一样的记录方式。无论是日记的方式，还是史稿的形态，作者都选择了和其他士大夫一样的记录方式。这一特点在创作了《梅泉野录》和《大韩季年史》的黄玗和郑乔的叙述中，也可以看到。

朴殷植是根据什么资料进行编写的呢？虽然无法确认具体的内容，本人在例言部分提到自己参考了十几部作品，而真实的情况应该是参考的作品数量要多于十几部。

在这部作品中，涵盖了报纸资料，法令集，条约等形式，相关的法令和条约在《韩国痛史》这部作品中更是随处可见。其中也包含了调查明成皇后弑害事件的格雷特豪斯报告书。1904年后，政局形式急转直下，作者自己也十分忙碌，所以他也表示有可能会在资料收集工作中有所遗漏。但从作品内容也可以看出，作者在尽最大地努力，随时都在收集资料。

甲申政变发生后，在政变失败后，收集了日本政治家的评价，也介绍了在金玉均被暗杀后，日本政治界对这个事件的反应。并且在“东学之乱”这部分叙述内容中，出现了“今上30年”这样的表述，这应该是在高宗被迫退位前，撰写的初稿内容。由此看来，他应该收集了很长一段时间的资料。



除此之外，在清朝发行的《万国公报》等报道资料中，也记录了海外事件和发展动向等信息。1894年3月，记录了在金玉均被暗杀后日本人的表现。因为他在大韩每日申报和皇城新闻上每周都发表社论，重要的资料也是在那段时间收集和整理的。我们也可以推测出，在同一时期，居住在京畿道杨根的池圭植也在整理相关的报纸内容。

1911年以后，考虑到朴殷植为了编撰《东明王实记》，《梦拜金太祖》，《泉盖苏文传》等多本教材和著作而奔走忙碌。所以我们推测《韩国痛史》这部作品应该是基于平时收集的资料撰写的。

除此之外，这部作品也提到了最近被发现的广开土大王碑，作者应该对最近发现及发掘出的金石文应该也很关注。所以，他在作品中，也有一页内容以集字的形式收集了广开土大王的字体，并把该字体用于题目。

《韩国痛史》的体系如下所示。以书首页的例言，目录，康有为和朴殷植的序文，照片目录，从广开土大王碑所集字的五祖，恩泽，勋戚，诚心，追慕，以及各种各样的照片排版而成。在书本的结尾部分有朴殷植的结论，朴殷植的后序，韩震的跋文和勘误表。正文部分分为了3篇，共114个章节。

第1篇分为2章，主要内容是韩国的地理和历史概要。第2篇共有51章，叙述了从大院君摄政时期开始，到日俄战争和列强权力之争时期为止的内容。第3篇共有61章，叙述了从1897年大韩帝国成立，到1911年105人事件的内容，详细地叙述了日本帝国主义强占朝鲜半岛的过程。

最后，介绍了和韩国痛史相似的异本。因为现在有些关于作品的错误信息流传开来，或者有些地方需要使用相关的内容。

首先，收藏于韩国学中央研究院的藏书阁的《略记便览》这部作品作者未详，其收录的大部分内容与《韩国痛史》这部作品相同。所以，这部作品有可能是抄写朴殷植的《韩国痛史》的副本。

但是，除了正文部分，所有的项目都有遗漏的内容，连正文部分也都只收录了“壬午军变之乱”，“甲申革党之乱”，“东学之乱”，“乙未八月废后及复位”。还有，“地方之义兵”，“俄馆播迁金弘集被杀事件”等重要的政治事件内容。除此之外，在结尾部分记载了“闵泳焕等人殉国”和“中国志士潘宗礼蹈海而死”等内容。



像“壬午军乱之乱”的内容，在结尾部分附有日期相同的新闻报道；像甲申政变的内容，在作者表达自身观点的批注部分，几乎没有从朋友处听说的故事。所以，这本书虽然不能说是《韩国痛史》这部作品的初稿，但这部作品应该是抄写了《韩国痛史》这部作品初稿的部分内容。

曾收藏于韩国银行信息资料室，后来移交至奎章阁的《韩末秘录》这部作品，则是与之相反的代表作品。与上海本不同，是文集的形式。没有在正文的前面例言，目录，序，序言和插画等内容，以及正文后面的后序和跋文，只有正文和结论。

除此之外，还在页面的上方添加了遗漏的语句，在正文部分标记了遗漏的内容。针对上述研究者推测的方向，也有一些不同的意见，有人认为这本书并不是《韩国痛史》的初稿，而是1915年后《韩国痛史》的手抄本。

除此之外，有可能是光复后亲日派成为了编辑，出版了《韩国痛史》这部作品。也有可能是在大邱有人出版了翻译版本。这个看起来像是亲日派为了隐藏自己的过失而出版的作品。

下节课，我们将学习《韩国痛史》这部作品在国内外产生的影响。



11-5 《韩国痛史》在国内外产生的影响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韩国痛史》的创作过程和构成方式。这节课，我们将学习《韩国痛史》这部作品在国内外产生的影响。

首先，《韩国痛史》的创作时期是在朝鲜进入殖民地社会的时期，让我们来看看这一点会产生怎样的影响。这本书用今天的话来说，应该是日本帝国主义严禁的禁书，是偷偷地进入国内市场的。所以不仅是对于朝鲜当时的知识分子，而且对于朝鲜总督府也产生了巨大的影响。我们来看看他们的反应。

《韩国痛史》在出版后，就流入了国内，大家纷纷开始阅读或抄写，从而促进了作品在市场上的流通。但是当时这部作品无法直接从中国进口，而是经由日本进入了韩国。因为从中国进口的书籍都会受到日本帝国主义严格的监视和检查，所以无法直接从中国通关进入韩国。日本人拼命阻止这本书流入韩国，但并没有如他们所愿。所以日本人干脆借科学地研究韩国历史之名，开始编撰朝鲜半岛史。

即，为了符合日本帝国主义的利益，他们彻底地扭曲了韩国的历史，想要掩盖真实的历史，并且试图抹杀韩国人存在的正统性。所以，他们记叙的编撰《朝鲜半岛史》的宗旨，我截取了部分与《韩国痛史》相关的内容，如下所示。

所谓《韩国痛史》，是韩国流亡在外的朝鲜人的著作，并没有反映事情的真相，而是作者故意编撰的妄说。这种历史书籍会蛊惑人心，杀伤力极大，这点是毫无疑问的。

当时，日本人也有点战战兢兢地，认为韩国人会不会受到了《韩国痛史》的影响，而参加到抗日斗争中来。他们这种担忧很快就变成了现实。在中国，俄罗斯，美洲等地的韩国人都纷纷通读或从别人的口中听说了这部作品，得知了日本帝国主义侵略的真实情况，以及先人们为了开展热血的民族运动而付出的心血和努力。

1917年，这本书在夏威夷被翻译为了韩语，并且出版了翻译本，也被作为在美韩国学生的教材使用。1917年6月，在夏威夷韩人侨胞运营的国民新报中，金秉植把这部作品的内容翻译为了韩语。1917年9月，居住于俄罗斯赤塔的金神父，具体姓名不详，将这部作品翻译为了俄文。在国内的韩国人，也避开了日本帝国主义严密的监视，悄悄地通读了作品，或者为了避开日本的监视，摘取了部分内容进行传播。



总之，东京留学生张德秀等人，在上海订了200本的《韩国痛史》，通过日本流入了韩国。有过留学经历的岭南学派的代表人物河谦镇，曾经开展了独立运动，1930年引用了《韩国痛史》中结论的部分内容，批判了日本帝国主义对于《韩国痛史》的打压。对于“如果国家历史不灭亡，那么国家也不会灭亡”这句来源于朴殷植序论的话，特别感同身受。

大韩帝国末期，留学生的代表人物田愚，在全罗北道扶安郡界火岛阅读了3篇133页的《韩国痛史》。通过这本作品，我们对于1907年高宗被迫退位，虽然让原来的天子代理他的位置，但是因为其受到胁迫，禅位意识根深蒂固这些内容有了基础性的了解。从田愚直接阅读了原版的《韩国痛史》这点看来，可以推测这本书当时应该有在市面流通。

郑寅普在1925年回顾朴殷植的生平时指出，朴殷植在上海停留时，创作了《安重根传》和《韩国痛史》两部作品。在那之后，在战时体制下，《韩国痛史》在部分知识分子阶层中悄悄地流传开来，成为了大家的读物。

以国文学者闻名的金东旭，生于1922年。如果他在中央大学专门部法学科上学的时候，即20世纪40年代上旬，没有读过《韩国痛史》这部作品的话，那应该就是在高等文官考试合格后阅读了该作品，才能写出回顾作者生平的内容。《韩国痛史》对于韩国知识分子阶层来说应该是一本必读的书目。

日本帝国主义试图曲解这本书的内容。这本书就是现在收藏于国立中央图书馆的《各国近史》。这本书的内容简要地摘抄自《韩国痛史》，他们有意地遗漏掉对自己不利的内容。例如在明成皇后弑害事件中，他们没有摘抄关于自己犯下的罪行的内容，在独立协会运动背后的大量事实都被有意隐藏掉了。

甚至省略了对于日本侵略的反抗等内容，要求其参考日本人编写的历史书籍，试图歪曲历史事件的真相。例如，为了反对乙巳勒约，韩国人开展的上疏运动，在日本人的著作中被形容为了“妄动”，大韩帝国军人们的斗争被称为“骚乱”。

照片中的内容是朝鲜总督府中枢院的职员带头进行歪曲历史的工作。

与此同时，中国知识分子阶层为了维护自身的民族利益，阅读参考了朴殷植这部《韩国痛史》。然后他们创作了《高丽闵妃》，《绘图朝鲜亡国演义》，《海牙剖腹记》等以朝鲜亡国为题材的文学作品，从而激发中国群众的危机意识。总而言之，他们把韩国近代史作为反面教材，将韩国的历史歪曲成劣等的国家历史。



但这种歪曲历史的行为，不仅仅存在于日本人和中国人之中。在韩国人内部，也有人将《韩国痛史》改头换面后变为自己的作品，或者错误地进行翻译，这一点大家可以自行探究。希望各位同学可以去一下大学图书馆，尝试检索一下《韩国痛史》的书籍事项。虽然远方也很重要，但是我们有时候也应该从近处开始反省。

这节课，我们学习了《韩国痛史》在国内外产生的影响。

这是我今天课程一直在介绍的《韩国痛史》这部作品的译注本的封面。这是一张1907年，在军队解散后，英国人随军记者长布莱尔·麦肯齐拍摄的大韩帝国军人的照片。大家觉得怎样？

我们通过这个课程，学习了《韩国痛史》的作者朴殷植的生平和创作活动，《韩国痛史》创作的背景和过程，以及其在国内外产生的影响。下节课，我们将基于《韩国痛史》的主要内容，开展一场正式的时间旅行。那么，我们下节课见。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다음 중 박은식의 약력 및 저술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5분

- ① 《한국통사(韓國通史)》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저술하였다.
- ② 박은식은 어렸을 적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소식을 들었다.
- ③ 박은식은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과 더불어 황해도 일대에서 천재로 알려졌다.
- ④ 박은식은 정약용을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았다.

정답 ④

해설 박은식은 1859년 황주 출신으로 여러 곳을 다니며 여러 학자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가서 신기영, 정관섭, 홍승운 등의 학자를 만나 학문을 수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조선후기 실학의 집성자 정약용이 사망한 지 40여 년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학문을 이어받은 신기영, 정관섭을 만나 학문을 수련했다는 점에서 박은식은 실학 사상에 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는 정확하지 않은 서술입니다.



02 다음 중 박은식이 사건 관련자를 직접 만나 그의 증언을 받아 사건의 뒷이야기와 평가를 《한국통사(韓國通史)》에 반영한 사건은?
5분

- ① 병인양요
- ② 갑신정변
- ③ 동학난
- ④ 명성왕후 시해 사건

정답 ②

해설 병인양요는 1866년 강화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프랑스 해군이 조선 정부의 천주교 신부와 신자 처형을 이유로 강화도를 침범한 사건입니다. 당시 박은식은 7살로서 강화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동학난은 1894년 전라도 고부 일대(현재 전라북도 정읍)에서 일어난 동학도와 농민들의 반란입니다. 박은식 역시 반란 관련 소식과 문서를 접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참여한 인물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명성왕후 시해 사건은 1895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일본이 삼국간섭으로 인해 상실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명성왕후를 시해한 사건입니다. 일명 을미사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박은식은 민병석의 유배지를 따라 강원도 원주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명성왕후 시해 사건에 관련된 인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에는 박은식의 친구가 이 사건에 관여하였고 박은식 자신이 서울에 올라와 있었던 까닭에 박은식은 그 친구로부터 여러 정보와 사건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에 그런 증언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03 박은식은 초기에 주자학자였지만 1910년 직전 양명학자로 변신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잘 보여주는 저술은 무엇인가?
5분

- ① 《학규신문》
- ② <신축의견서>
- ③ 《한국독립운동지혈사》
- ④ 《왕양명실기》

정답 ④

해설 《학규신문》은 박은식이 1904년 그의 교육개혁에 관한 논술을 모아 간행한 학술서입니다. <신축의견서>는 1901년 대기근을 맞이하여 박은식이 진흥을 위해 외국산 곡식을 수입하자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입니다. 이런 제안은 당시 미곡 유출에 따른 전통적인 진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근대 미곡 무역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렴한 외국산을 수입하자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박은식은 여전히 전통 주자학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수립된 뒤 박은식이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모아 1920년에 편찬한 책입니다. 당시 박은식은 3·1운동에 영향을 미친 민족자결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인 유학자라기보다는 근대 사상사 상가로 변신하고 있던 즈음입니다. 《왕양명실기》는 박은식이 양명학의 창시자 왕수인(1472~1528)의 일대기와 사상을 정리한 책으로 1910년 발표됐다가 조선총독부에서 판매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④가 정확한 답안입니다.



04 박은식이 1915년 《한국통사(韓國通史)》를 출간할 때 출판을 주선하였을뿐더러
5분 서문도 써준 인물은 누구입니까?

- ① Kang유웨이
- ② 쑨원
- ③ 최남선
- ④ 이광수

정답 ①

해설 쑨원은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을 일으킨 인물로 오늘날의 중국을 만든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은식과 쑨원의 교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남선은 박은식이 《왕양명실기》를 연재할 때 도움을 주었지만 《한국통사(韓國通史)》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광수는 한국근대 문학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 독립운동 관련 사료 편찬에 관여했지만 《한국통사(韓國通史)》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에 Kang유웨이는 청말 변법자강운동을 벌인 양명학자로서 박은식과 사상적으로 교감하였을뿐더러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대동번역국에 이 책이 출간되도록 주선하였습니다. 따라서 ①이 정확한 답안입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 됩니다.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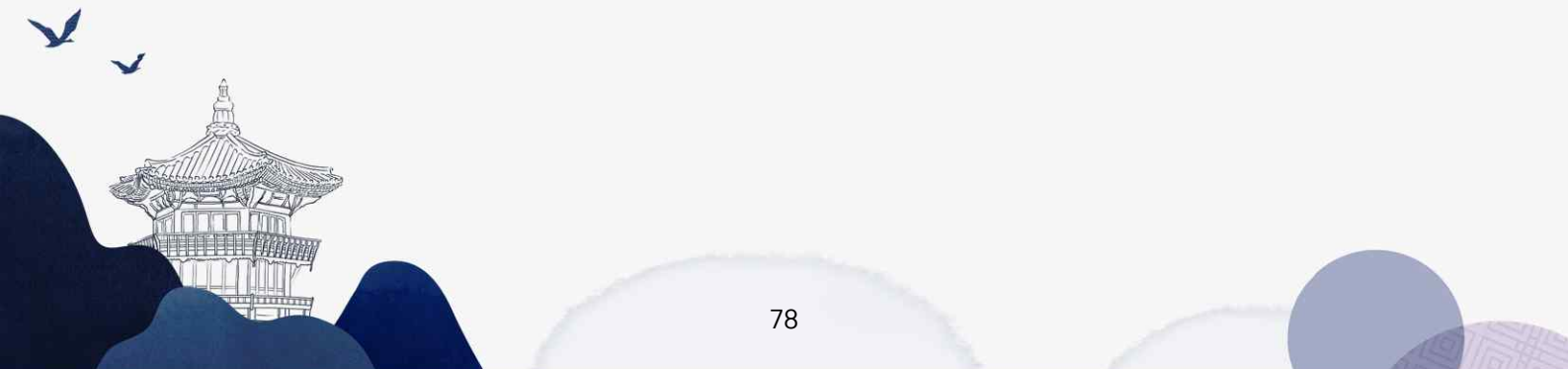
박은식의 《한국통사》는 한국 근대 역사학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일제강점기 이전 전통 국가에서 편찬한 역사책에 비하면 여러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이 책은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 재야에서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편찬했다는 점에서 편찬자의 역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혼자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이 완벽했겠는가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인 동시대의 역사(contemporary history)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역사서라기보다는 기록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역사가가 자신이 겪거나 접한 역사적 사건을 전체 역사 발전의 맥락 속에서 이해 관계에 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서술할 수 있겠는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자. (60분)

참고

박은식의 《한국통사》는 오늘날에는 한국근대사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당대에는 현대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도 관아와 개인들이 공적인 일기나 사적인 일기를 평소에 작성하여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물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왕이 죽으면 바로 실록 편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실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할뿐더러 평소에 각 관아나 사관들이 남겨 놓은 기록물이나 논찬(論贊, 논평)을 근거로 집단적으로 편찬하기 때문에 개인이 편찬하는 역사책에 비해 공정성과 정확성 시비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반면에 박은식의 《한국통사》는 개인이 편찬하고 공개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였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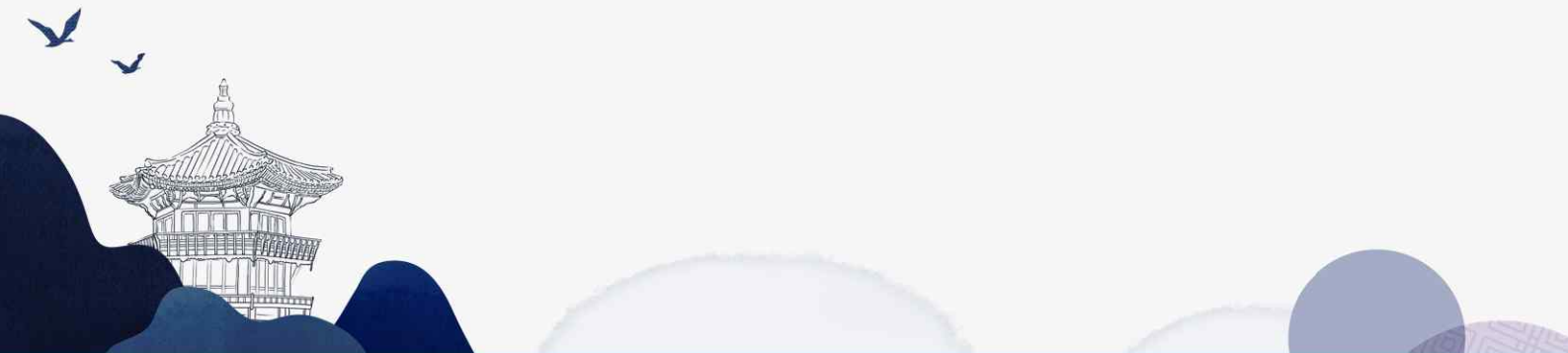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우선 관보, 신문, 조약문, 국가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했음이 저술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또한 문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자료는 관련자를 찾아 구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견해를 별도의 항목(按, 說)을 설정하여 밝힘으로써 독자들이 사실과 견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의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누누이 편찬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아무도 이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편찬해야 하는 사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국가가 견지해온 역대수찬(易代修撰, 왕조가 바뀌면 역사를 편찬한다)의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는 역사의식과 함께 일제의 역사왜곡 작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역사의 진실을 후대에 남겨 주권을 회복해야 하겠다는 소명의식이 작용했습니다. 역사 서술의 보편적 원칙도 중요하거니와 주권을 상실한 민족과 나라의 고통어린 사정에 비추어 역사 서술의 특수성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역해 한국통사, 박은식, 김태웅 역해, 아카넷, 2012

이 역해서는 《한국통사》의 주요 내용을 해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문(全文)을 번역하지 않고 역사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국내 정치적 주요 사건을 위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전 번역본의 충실한 번역을 바탕으로 하되 드러나는 오류나 오역은 바로 잡았으며, 내용의 분량은 적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부 처음에 해당 소시기의 역사를 개관하는 글을 붙였습니다. 본 강의는 물론 한국근대사에 낯선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을 제공하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통사 상, 하, 박은식, 이장희 번역, 박영사, 1974

일반인들이 많은 찾는 번역본입니다. 특히 여타 번역본과 달리 전문(全文)을 번역하여 이 책의 진수를 맛보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다만 해설이 달려 있지 않아 한국근대사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 적합한 책입니다.

- 역사학의 역사, 한영우, 지식산업사, 2002

한국사학사의 대가 한영우 교수가 저술한 사학사 개설서로 쉽고 평이하게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사학사의 흐름을 파악할뿐더러 각 시대에 저술된 역사서의 가치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강의와 관련된 부분은 제3장 근대 민족주의의 역사학입니다. 박은식의 역사학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웹사이트

-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http://search.i815.or.kr/dictionary/detail.do?searchWord=%EB%B0%95%EC%9D%80%EC%8B%9D&reSearchWord=&searchType=all&index=1&id=690>

- 한영우, 민족사학의 성립과 전개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국사관논총 3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4&totalCount=14&itemId=kn&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types=&searchSubjectClass=&position=4&levelId=kn_003_0090_0030&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D%95%9C%EC%98%81%EC%9A%B0+%EB%AF%BC%EC%A1%B1%EC%A3%BC%EC%9D%98&searchKeywordConjunction=AND